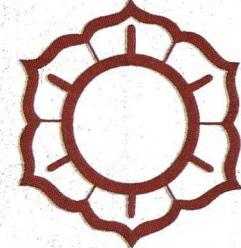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홈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회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4년
11월 1일
월요일
제61호

이 달의 종조법설
불건을 먼 곳에 두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성불하기 어렵게 여겨지지만 자성불이 곧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설불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진리가 먼 데 있다고 생각한다, 깨어지기 어렵지만 만약 생활중에 있다고 한다면 곧 능히 체득하여 깨칠 것이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밀교 진언행자로 부처님 법 실천”

총지종 교도 수명관정수계법회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교도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9일에는 서울 총지사에서 서울경인교구, 충청전라교구 교도들에게 11월 25일에는 부산 정각사에서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교도들에게 수명관정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총지종은 2년여 전부터 교도 수명관정수계법회를 준비하여 왔으나 특정, 수성 종령의 잇따른 열반으로 인해 본 행사를 치루지 못했으나 효강 종령의 추대 후 종단 내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동시에 교세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본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다.

수명관정수계법회는 밀교의 수행자에게 계를 주는 것으로 교도에게 주는 관정을 말하며, 관정은 여래의 다섯 가지 지혜를 상징하는 물을 아시리(밀교 스승)가 제자와의 머리에 뿌려주는 의식으로 부처님의 자리를 계승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밀교에 입문하는 자가 불보살과 인연을 맺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을 결연 관정, 밀교에 입문한 진언행자가 자기



지난 수명관정수계법회에서 교도들이 불명과 보살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진언행자로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와 인연이 맞는 불보살의 인계와 명주를 받는 것을 수명관정이라 칭한다.

총지종 종정 원정 대성사께서는 수명관정수계에 있어 종조 법설집에서

“대자 상(賞)이란 훌륭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의 개념이요, 원리이

서울경인교구지회 자원봉사단 결성 보육원, 독거노인, 노숙자 봉사활동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마음 속으로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어야 하면서도 시간과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봉사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종단차원의 지원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총지종 보살들을 위한 양로원을 시급히 마련하여 노보살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서울경인교구 지회는 우선 각 사원별로 자원봉사자의 회망원을 접수받아 자원봉사가 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시청, 구청,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하여 봉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물적 인 사항은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과 회원들의 상호 연락을 위해 지회 사무실을 상설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자원봉사단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차후 봉사활동을 실천한 후 개선점과 활성화방안을

『종조원정기념관』 개관불사

12월 2일, 서울 총지사 2층에서

총지종의 숙원사업인 『종조원정기념관』 개관불사를 통해 일대 도약의 발판을 삼을 것으로 보인다.

『종조원정기념관』은 본관에 영정을 모신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제단 뒷 공간에는 종조님의 유품과 창종 당시의 각종 자료사진, 종조님의 유고(遺稿), 참고문헌, 전시장 중앙에는 창종 초창기 형태의 본존(本尊)과 불단(佛壇)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특히 『법

문에 총지종에서는 이번 『종조원정기념관』 개관불사를 통해 일대 도약의 발판을 삼을 것으로 보인다.

『종조원정기념관』은 본관에 영정을 모신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제단 뒷 공간에는 종조님의 유품과 창종 당시의 각종 자료사진, 종조님의 유고(遺稿), 참고문헌, 전시장 중앙에는 창종 초창기 형태의 본존(本尊)과 불단(佛壇)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특히 『법



총지사 2층 원정 종조기념관에 전시된 종조 원정 유물들.

다. 삶을 받는 사람은 정직과 성실과 겸손과 양심적인 동시에 다른 이의 귀감이 될 만한 이들과 업적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정수계와 불명수여도 신심이 전일하여 삼보를 공순하게 받들고 묵묵히 성실하게 실천할 때 공덕이 드러나고 중생제도에 열성적으로 행동하여 다른 교도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참다운 삶의 의미는 오히려 벌과 상에 관계없이 성실과 정의에 살아야 할 것이다. 관정수계와 불명이 남발되면 아무 효과가 없고 권위가 없고 선망이 없을 것이다.

관정수계와 불명을 주는 것은 부처님이 주는 것임을 알고 묵묵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서원이 성취되자 하면 고통스러울 때나 화복할 때에 관계없이 그 정진은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하셨다.

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는 “수명관정수계는 부처님과의 약속이며 불법에 귀의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는 의식임을 인지하고, 수명관정수계를 수지받는 교도들은 탐·진·치·삼독을 버리고, 업장소멸을 위해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여 용맹정진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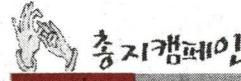
이번에 수명관정수계를 받을 총지종 교도는 500여명으로 밀교의 진언행자로서 5개인 보살계와 불명을 수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불교『편찬원고』 ‘유지재단 정관 초안’ ‘한일불교 한국대표 방일보고서’ 등이 전시되어 역경작업(譲經作業)과 종단 체제를 확립했던 근거자료가 남아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사종 수법용 사색간’ ‘사종수법용 사색법의’ 정진결과보고서 ‘정진일지’ ‘원경(圓鏡)’ ‘준제관음상’ ‘양계만다라’ ‘아자(阿字)와 육합상(六合相)’ 등 종단의 고상과 사상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종조원정기념관』 개관불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는 “종조 원정님께서는 총지종의 창종주로서 육자진언과 준제관음으로 교화하여 그동안 불자들에게 생소한 밀교를 포교하여 진언행자로써 당체법문을 통해 당상즉도의 세계를 펼치시고 총지종의 사상과 교상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개관불사는 총지종의 종품과 종지를 확립하고 종생제도를 위해 일대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지종은 종조 원정님의 사상과 교상을 연구하기 위해 종학연구실을 설립하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구논문을 공모하여 각종 세미나를 준비할 예정이다.



저출산율과 고령사회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멀더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입여성 1인당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입기간인 15~49세 사이에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이는 일본의 1.33명, 영국의 1.64명, 프랑스의 1.89명 보다 낮은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의 절반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율의 원인은 첫째 자녀 양육비의 부담이다. 특히 양육비 중 사교육의 부담이 너무 크다. 둘째 타시아설이 절대 부족하여 사회생활을 결혼 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꺼린다는 점이다. 셋째 결혼이 늦어짐으로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넷째 부부 중심의 생활을 위해 출산을 부부가 스스로 제한한다. 하지만 출산율을 세계최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로는 그 당시의 정부에 있다. 1971년부터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을 위한 정부의 홍보포어를 보면 “딸 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 시대 산아제한은 국민의 4대 의무 보다 더 강조되었고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르지 못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회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지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가 주도해 나간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아제한 정책이 정착한 국가로 인정받았고 오늘날 우리사회는 저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를 거두는 것이다. 현재의 출산율로 계산하면 2050년에는 세계최고의 노령화 국가가 되어 노동인구 100명당 6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고령화 되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기반 또한 노쇠화되고, 이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저출산율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죽비소리

비릇함이 없는 옛적부터 익혀 온 예우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이 얹히고 설켜 잠깐 수그러들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걸이 학걸과 같나니 일제의 시간 속에서 가행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번뇌를 능히 막고 마음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만일 한가로이 근거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면 어찌 마음자리를 깨달아 윤리를 벗어나는 길을 구한다고 하겠는가? 다만 뜻과 절개를 굳건히 지니고 자기의 몸을 꾸짖어 계율리 하지 말고 그릇됨을 알았거든 선한 테로 옮겨서 고치고 뉘우치고 부드럽게 만들지니라.

『제초심학인문』 중에서

수명관정수계법회

“수명관정수계는 신심(身心)이 전일하여 삼보를 공순하게 받들고 묵묵히 성실하게 실천할 때 공덕이 드러나고 중생제도에 열성적으로 행동하여 다른 교도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총지종의 교도들에게 불명과 수계를 수지하여 진언행자로서의 삶을 즐득케하는 수명관정수계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 및 사부 대중은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 33년 11월 19일 14:00 : 서울경기, 충청전라교구
총기 33년 11월 25일 14:00 : 대구경북, 부산경남교구
- 장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 552- 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합장

사설

종단의 유류재산 관리 시급하다

우리는 7년전 국가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다.

다행히 전 국민이 합심하여 단기간에 경제신탁통치를 벗어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성공을 보인 국가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런 성공도 잠시에 그쳤고 국가경제는 벌써 수 년째 바닥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직, 실업자,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시민의 수가 무려 4백 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경기의 침체를 상쇄 하던 수출은 나날이 치솟는 국제 원자재가격으로 말미암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 회복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한다. 풍랑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배에는 물이 차 올라오는데 당장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때 사회 각 부문은 각각 국가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발전의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현 시기의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비정부 분야는 또한 각각 중장 기적 정책을 세우고 실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과 비정부 차원이 함께 사회적 협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사회는 다시 한층 성숙한 발전을 보일 것임에 틀림 없다.

이를테면, 지난 구제금융시절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벌였던 파소비주방운동이라든가, 실업대책으로써 가장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 등은 정부와 비정부 분야의 합심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즉, 정책의 자문만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예산이나 제도정비로 지원을 하고 비정부 분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협조체제가 가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함께 우리 종교계도 사회 활성화를 위해 종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그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에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인구는 무려 5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종교활동이 주는 사회적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한 통계가 아직 없지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종교계의 수입이 다시 종교시설 신축 등 건설행위로 사회에 되돌려지는 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시기에 정부와 종교계의 지원 동원문제는 절실히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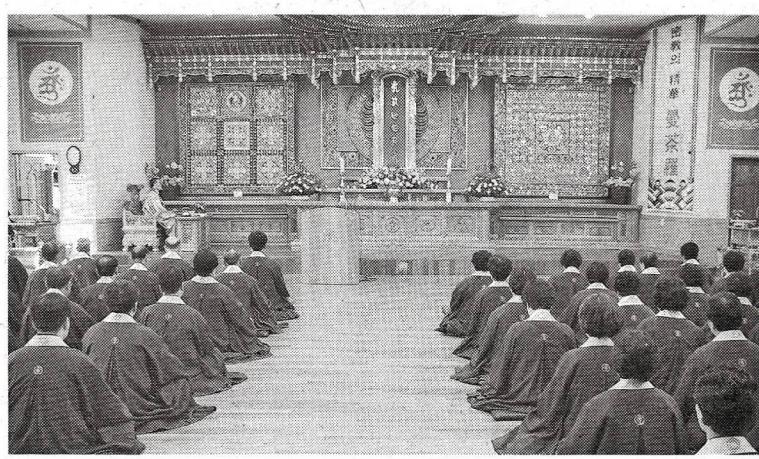
우리 종단도 유류재산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축복 괴산군의 재산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용하지 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자를 주요한 종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정하고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복지마을을 세우고자 1984년 12월부터 1985년 8월에 이르기까지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그 뒤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현재까지 거의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종단으로나 국가로나 크니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종단은 괴산군 소재 종단재산에 대한 활용을 시급히 해결할 현안으로 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특별히 종책실이 가동되고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동원은 종단발전과 함께 침체에 빠진 한국사회와의 협력 회복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믿는다. 모조록 정부는 종단의 의지에 화답이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비정부분야와 함께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모습을 확고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종단 역시 자원의 동원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화활성화와 도약의 길

총지종 제64회 추계강공회



◆ 지난 64회 추계강공회에서 전국 스승님들이 모여 종단발전과 포교활성화를 논의하였다.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님과 종무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64회 추계강공회를 실시하였다.

원의회에서는 올해 65세가 되는 스승님들의 연장근무와 퇴임스승에 대한 신청서를 심의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개강불사에서 효강 종령예하는 “종단이 지금까지 유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종조님과 선배스승님

들의 노고와 희생덕분이기 때문에 선배스승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공의 본래 취지는 종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양과 사상의 두 날개가 조화를 이루 때 날아갈 수 있도록 강공을 통해 교상을 확립하고, 일선 사원에서 교화하신 일선 스승님들의 교화경험담을 서로 교환하여 교화활성화를 모색하였으며, 종지종의 수행체계를 짐작하는 자리로 스승님들께서는 강공을 마치고 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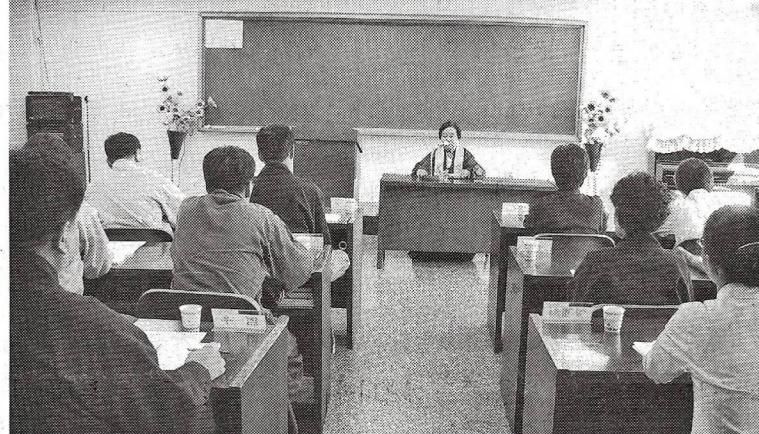
때는 가슴속에 환희심의 보따리를 기득 안고 떠났지만 최근에는 강공의 형태가 변화되어 각종 회의와 시기, 반복으로 일관하고 있어 강공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강공의 취지를 살리고 교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이번 강공을 통해 스승님들께서는 각자 분발하여 일대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의 기회를 삼기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우승 통리원장은 종단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중앙종의회를 열어 종단현황을 조명하고 추가경정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승단총회에서는 종단의 주요 관심사인 교화활성화 차원에서 사회복지와 불단장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법경정사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 포교, 사회복지, 수행, 남몰묘, 양로원을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특히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성하여 양로원과 남몰묘 건립이 우선과제다.”라고 말하였고, 화령정사는 “종단의 교화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대안인 불단의 장엄화와 의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에는 스승님들에게 아사리계를 수여하는 전법 관정을, 열반스승들에게 대한 추선불사를 봉행한 후 폐강식을 끝으로 추계강공회가 성료되었다.

“도제양성의 기틀마련”

12월 중순 시무, 종무원 교육



◆ 지난해 실시된 시무교육에서 예비스승들이 교리, 실무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총지종은 12월 중순부터 신규스승후보자(시무)와 신규종무원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교육을 받을 대상자는 김혜정(혜정사), 김경창(단음사), 김미숙(단향사), 김용주(통리원), 공이영(통리원), 김지정(총지사), 오세길(혜정사), 장동우(자석사)이다.

이번 교육은 7개월 동안 종교교육원에서 교리와 교법, 종무에 대

한 이론과 일선 사원에서 스승에

알림방

- ☞ 수령관정수계법회를 서울경기, 충청전라교구는 11월 19일 총지사에서,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는 11월 25일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합니다.
- ☞ 총지종 종조 원정 기념관개관불사를 12월 2일 총지사 2층에서 봉행합니다.
- ☞ 강남자활후견기관 개관불사를 11월 11일 서울 통리원 자활후견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대한 실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무원은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 3개월동안 통리원과 사원에서 수습 과정을 이수한 후 정식 발령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 주목할 점은 종단적으로 인재양성차원에서 젊은 인재를 채용하여 5년 동안 불교교양과 밀교교리, 종지종 수행법을 실수하며 수행하여 왔으며, 종전의 비체계적인 스승등용의 틀을 벗어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일정 기간 수행한 자를 등용하는 종단의 교육체계 결과물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시무교육을 계기로 종단의 도제양성의 틀을 마련하고, 차후 도제양성에 대한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지표를 마련할 세부구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행문

제7차 한·중·일 불교도 대회를 다녀와서

한국·중국·일본의 삼국들이 불교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삼국간의 불교발전을 도모하는 제7차 한·중·일 불교도 대회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5박 6일간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1995년 5월 제1

차 한·중·일 불교교류대회가 개최된 후 역사적으로 삼국간의 불교문화 교류의 증진을 이루어 ‘황금의 유대관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삼국간의 불교교류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속의 불교’를 도모하고자 ‘세계불교포럼’을 제안하여 삼국의 불교가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있어 의미가 깊다.

첫날 이른 아침에 대한항공 편으로 광활한 대륙의 벌판을 지나 중국 북경에 도착했을 때 북경의 하늘은 황사 때문에 뿐

가파른 바위절벽을 걸으며 바라보는 산속의 경관은 장관 그 자체였다. 이러한 장관은 보는 모든 이들에게 놀랐는데 밖에는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가 아지랑이처럼 널려있고, 옆에는 시멘트로 손잡이만 있을 뿐이었다.

가파른 바위절벽을 걸으며 바라보는 산속의 경관은 장관 그 자체였다. 이러한 장관은 보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움과 감탄사를 발휘하게 하였다.

항산의 아름다움을 뛰어한

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 버스로 다시 항주로 이동하여 서호호수를 유람하였다. 서호호수 주변에는 높은 건물, 조그마한 나무숲들이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었다.

서호호수를 마지막으로 항주 일정을 마감하고 다음날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상해를 방문하였다. 상해에는 높은 빌딩들이 수 천개 펼쳐져 있어 세계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일정에서 느꼈던 점은 불교가 중국의 핵심 종교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중국에는 수 천개의 사원이 존재하지만 운영할 스팀들이 부족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국가적 지원으로 불교의 진흥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중국인구의 30%를 불교신자로 만들기 위해 탄종교의 개방을 폐쇄하며 불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기울이고 있어 차후 중국불교는 세계종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중국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

이날 오후에는 ‘황금유대관계’라는 주제로 상호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대표자들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들은 불교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인재양성과 수행풍토조성을 주장하였는데 중국 스승들이 연설하는 모습은 당당하고 기풍과 진실성이 있어 보였다.

다음 일정은 항주에 도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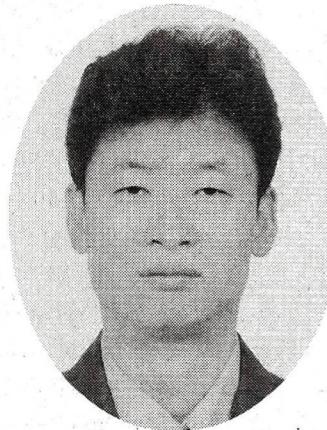
김용주/총지종보사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4년 9월 30일부터 2004년 10월 28일까지

개천사	김옥희	20,000	만보사	조덕남	5,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실지사	정연수	5,000	정각사	최수분	10,000
개천사	김홍련	10,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총지사	양철미	20,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김덕자	20,000	수인사	김진	10,000	실지사	주영채	10,000	총지사	지심행	20,000
개천사	이희권	20,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운천사	김부자	10,000	혜정사	수증원	20,000
관성사	김병석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운천사	박보경	2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관성사	박현숙	10,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실보사	방원순	10,000	운천사	배도련	20,000	화음사	강수란	5,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자식사	우바이	60,000	흥국사	길현숙	4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보사	안경숙	5,000	정각사	구정희	20,000	무명씨	30,000	
기로원	대관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보사	안경숙	5,000	정각사	김정남	20,000	무명씨	2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실보사	이순우	5,000	정각사	김정남	6,000	무명씨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박병성	5,000	정각사	박훈희	20,000	박남섭	20,000	
기로원	불멸심	10,000	백월사	강대길	5,000	실지사	박병성	10,000	정각사	신영자	10,000	오윤보	5,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백월사	김종순	5,000	실지사	보생각	5,000	정각사	신우필	5,000	이영서	5,000	
단향사	공철봉	2,000	백월사	박삼순	10,000	실지사	이숙례	5,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이화수	5,000	
덕화사	김상열	20,000	백월사	이										

총지칼럼



김 종 인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
구로 철학 석사 (1994)
▲스토니布鲁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오해

구사되어야 하는가는 중생의 근기에 의해 결정된다.

근기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문화적 교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문화적 교양을 결정짓는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환경이다.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한다는 것은 대중의 문화적 환경에 맞게 설법한다는 것이다. 대중들이 속해 있는 문화적 환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않고서는 불법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런데 이런 문화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치 않고 구래의 문화적 관습에 안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불교계이다. 불교계가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론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또 불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불교인들이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기 위해

하는 급변하고 있으며, 불교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데 불교와 관련된 전통 문화에 대한 오해로 불교와 전통 문화를 동일시하는 불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한 적응을 방해하고 있다.

불교는 오랜 동안 이 땅의 전통 종교로서의 역할을 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전통과 하나가 되었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례, 승려와 신도들의 의복, 사찰의 건물 양식, 음식에 이르기까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 현상 가운데는 이제는 더 이상 사회의 일반적 문화현상과 융합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런만치 당연히 고쳐져야 할에도 불구하고 불교 고유의 것이라고 여겨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교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래 왔다는 이유로 모든 경을 한자로 읽고 있다. 《반야심경》이든 《천수경》이든 지 모두 한자로 읽고 있다. 대부분의 신

도들은 의미도 모른채 그것을

을 따라 읽다. 한글세대가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된지가 오래 됐지만 사찰에서는

의례에 사용되는 모든 경을

한문경을 사용하고 있다.

기껏한다는 것이 한자 및에

한글 음을 단 의례집을 나

누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모든 법당은 입식이

아니라 좌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

국인들의 생활양식은 이제 모두 입식으

로 되어 있다. 가정에서의 생활도 그렇

고, 학교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회사에서

의 생활도 그렇다. 다만 일부 가정에서

만 안방에서만 양반다리를 하고 있을 뿐

이다.

그 위에는 어디에서도 사찰의 법당에

서 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곳이 없

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양반다리를

해 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법당에 앉

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다리의 고

통 때문에라도 젊은 사람들은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의례에 동참하기 힘든 것이다.

승려와 신도와의 관계 또한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인격적 평등의 법칙과 크게 다르다. 대통령과 국민, 회사 사장과 근로자, 나아가서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조차 인격적 평등을 기초로 설정되고 있지만, 불교 승려와 신도와의 관계는 인격적 불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많은 승려들이 신도들에게 삼배를 받는 등 전근대적 허위의식을 가지고 신도들을 대하고 있다. 승려들이 신도들의 정신적 스승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격적 지배자는 아니다.

그런데 불교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들을 사실은 불교 교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의 문화의 전통적 요소일 뿐이다. 게다가 오늘날 사회 일반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불교계에 남아 있는 문화적 요소일 뿐이다. 불교계 내부에는 이처럼 더 이상 사회 일반에서는 사라진 많은 문화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불교를 개혁하여 새로운 시대의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방편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적확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들이라도 불교의 기본 교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오늘날의 사회 일반의 문화 양식에 맞는 문화들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대승불교의 방편의 정신을 살리는 것일 것이다.

니다.

마지막 성소작자는 짓는 바를 다 완성하는 지혜,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다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곧,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지혜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중생에게도 이 지혜는 있습니다. 다만 갖추어져 있어 부처님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교민의 티끌 속에 묻혀 빛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교민의 먼지를 털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아상과 인상에 얹매여 무명만 키워 갑니다. '나'와 '너'로 편을 가르고 벼를 쌓아 더욱 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정녕, 아상과 인상을 내세워 무명의 업장만 키워간다면 다가오는 과보는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굳게 닫혀 있는 자국의 문도 그 업의 힘은 능히 열 수 있습니다. 불지옥도 칼지옥도 뱀지옥도 놓히 만들어냅니다.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늙음은 빨리 옵니다. 지금 마음을 되잡아 도를 닦지 않는다면 "제 잘난 체 안배우고 세월만 보낸다면 병들어 신음할 때 한탄만 가득하리"라는 말처럼 결과는 자명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아상을 버리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하심을 하면 어느 곳에 서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심을 하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선, 기도, 경전공부!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티끌이 차츰 사라져 어둠(무명)은 걷히기 시작 할 것이고 반야의 지혜는 발현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뒷날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 또 정진합시다.

(편집자 주)

한국사회는 빠른 문화적 변화를 경험

사회문화현상에 적합한 교화방편 개발

서는 불교의 어떤 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다. 불교인들이 이처럼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쉽게 갈피를 못 잡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선불교의 고립적인 산증생활, 현대 교육의 부재, 반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지배 세력에 대한 피해 의식, 교단의 지도력 부재 등등이 모두 그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중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 방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불교의 전통 문화에 대한 불교인들의 오해이다. 사회의 문

지 기준의 문화 전통과 융합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결과 그러한 문화 양식들이 원래 불교 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교와는 상관 없이 존재하는 문화 전통일 때를 살펴보면 불교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다. 불교 교리 및 사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민족 내부에 있어 온 문화적 현상들조차 불교적인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불교가 민족의 전통 문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 온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며, 또 이러한 조화는 불교가 한반도에서 융성

반야를 길러라

이달의 설법문안

근 거울은 사방을 다 비출 수 있습니다. 보통의 거울은 사물만 비춰지고 염라대왕 앞의 '업경(業鏡)'은 지난 세상에 지은 업만이 비춰지지만, 대원경에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대원경지를 성취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마음속 일을 동시에 다 보실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꿈틀거리는 미물들의 마음까지도 날낱이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성지는 평등한 마음으로 비춰보는 지혜, 조그마한 차별심 없이 비춰보는 지혜입니다. 해와 달은 차별없이

빛을 비춥니다. 누구는 예쁘니까 더 많은 빛을 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조그마한 빛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빛을 주고 또 줄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한테 벌받았다" 부처님이 특별히 복을 준다"는 등의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비광명은 조금도 모자람없이 나에게 비춰집니다.

허물은 내 쪽에 있는 것이지 부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고 안되고의 열쇠는 내 쪽에서 쥐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 쪽에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미우니까 별을 주고 예쁘니까 복을 주는 그런 분이라면, 그것은 귀신이지 부처님이 아닙니다.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예뻐한다면 그분이 어찌 대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살펴보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며, 그와 같은 자비광명은 바로 평등성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묘관찰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아주 세밀한 것

『대집경』 등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년 이 지났을 때, 천 년이 지났을 때, 2천 5백년이 지났을 때, 3천 5백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처승이 생기고 교단이 어떻게 된다는 등의 불교 관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일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쪽 사람의 기반이 서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저쪽 사람이 죽는다."

"거드랑이에 날개를 붙여 하늘로 날아다닌다."

"이제는 땅만 파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허공을 파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

"나중에 한 방

울의 액체만 먹고도 살 수 있고, 팔만 페면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 예언들처럼 권총이나 레이저광선총들이 발명되어 서로 죽이고 헝클라이더를 타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전자를 이용하여 공기속에서 영양분을 추출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사람들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세상도 올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묘관찰자로써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날김없이 궤뚫어보고 계시며, 시방 세계의 모든 국토를 날김없이 관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되고 안되고의 열쇠는 내 쪽에서 쥐고 있는 것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하면 반야의 지혜는 발현

까지 날김없이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천 5백년전에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방울의 물을 관찰하니 8만 4천 마리의 벌레가 있구나. 우리의 몸에는 팔만 개의 털구멍이 있고, 하나하나의 털 구멍마다 구역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묘관찰자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다 궤뚫어 보셨습니다.

불교 총지종 서울 경인 교구 지회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신정회에서는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모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여유 있고 넉넉할 때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돈을 번 다음에, 시간이 생긴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 사람

혹은 나는 가난하여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부족함 속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간 : 항시 모집

인원 : 000명

대상 :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총지종 교도

문의 : 02-3452-7485

불교총지종 서울 경인교구 지회 합장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②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대명백신보살(大明白身菩薩),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

지난 호에서 성관재보살의 위아래에 있는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과 ‘다리보살(多羅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대명백신보살(大明白身菩薩),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에 대해서 살펴 본다.

대명백신보살(大明白身菩薩)

대명백신보살(大明白身菩薩)은 다라보살(多羅菩薩)의 오른쪽(西方)에 위치하지만, 『대일경』에서는 여기에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이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준 모두 인상(印相) 등은 동일하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 일 뿐이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존명(尊名)은 「하얗게 빛나는 커다란 지혜 있는 자」라는 의미로 중생의 마음이 때를 제거하는 작용을 나타낸다.

원손에 들고 있는 개부연화(開敷蓮華)는 중생의 때문지 않은 본래심(本來心)을 상징



대명백신보살

한다.

『대일경』에서는 「대력지명왕(大力持明王)」이라고 불리운다. 『대일경소』에 의하면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보마(寶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고 질구(疾驅)하는 것처럼, 목숨과 몸을 돌아보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커다란 정진력에 비유된다.

말(馬)은 동물 중에서도 특히 수초(水草)를 찾아 먹으나, 말 중에서도 특히 깊주린 말이 그 육수가 강한 것처럼, 보살 중에서도 마두관음(馬頭觀音)은 중생구제의 마음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연화부원(蓮華部院)에서 특이한 분노형(忿怒形)을 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대비심(大悲心)의 번뇌를 끊는 작용을 강조한 때문이라고 한다.



마두관음보살

존형(尊形)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본의 민간신앙에도 널리 퍼져 있으며, 수험도(修驗道)의 「마가지(馬加持)」 등의 신앙도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밀호(密號)는 신질금강(迅疾金剛), 담식금강(耽食金剛)이다. 삼매야 형은 백마두(白馬頭)의 모습이다.

존형(尊形)은 적육색(赤肉色)으로 삼면이비(三面二臂)로 각 면에 세 개의 눈

개부연화(開敷蓮華)는 중생의 때문지 않은 본래심(本來心)을 상징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은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중생 구제

상정금강(常淨金剛), 방광금강(放光金剛)이다. 삼매야형은 개부연화(開敷蓮華)를 들고, 오른손에 여원인(與願印)을 맷고, 붉은 색연꽃(赤蓮華)의 위에 앉는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진언은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의 진언과 동일하다.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

마두관음보살의 존명(尊名)을 범어로 살펴보면, 「준마(駿馬)의 머리를 갖고 있는 자」라는 의미로, 인도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으며, 비슈누신(神)의 열 여덟 번째의 화신(化身)이라고도

(三目)이 있으며, 마두(馬頭)의 인(印)을 맷고 있다.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백마두(白馬頭)를 쓰고, 적연화(赤蓮華)에 앉는다.

인상(印相)은 미두인(馬頭印)을 하고 있다. 미두인은 허심합장(虛心合掌)을 하고, 두 무명지(無名指)를 앞으로 넣어, 두 엄지를 구부려 손가락의 등 부분을 마주하게 하고, 두 엄지의 밑에 놔두고 밀알만큼 서로 뻗 모양을 하고 있는 결인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가타야 밤자 사파타야 사바하(namah samantabuddhanam khadaya bhamra sphotaya)”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씹어 드시기를, 부수어 주시기를, 파쇄(破碎)하시기를, 사바하”의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범이 필요하고 감옥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 이유를 물어 보면 그 대답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것과 저것을 훔쳤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실제 그것들을 훔쳤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그리고 진실과 부합되게 어떤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조차도 우리는 전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동일한 방식을 견지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올바로 알아채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단 말인가? 봇다와 제자들은 그 고귀한 진리로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느 부위인가? 그렇게 스스로 물고 그것을 밝힐해 보라. 여기서 아프고 저어서 쏘신다면, 그렇게 아프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무엇이 그 아픔을 부추기고 면밀히 보라.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어디서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그것을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그것을 고통으로 인식하는지를… 이 몸이 죽을 때 사람들은 이 몸을 화장해 버린다. 그때도 그것이 아플 것인가? 이것이 아프고 저것이 통증이라는 생각으로 그대를 속이는 그것은 누구인가?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 탐욕과 갈애임을 알아차림

▶ 바로 그것이 자신이 받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이유입니다.

사람이 괴로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탐욕과 갈애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들인다면 진리에 일치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들은 그 진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조차도 그것은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에 따라 고통은 이 몸과 마음에서 우리가 최초로 그것을 인식하게 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이 마음을 불건전하게 오염시키는 지점에 이르면, 그것들에 의해 흥분하고 놀라며, 화를 내어야 합니까?

▶ 어느 선각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은 고귀한 진리이다. 만약 우리가

가? 깊게 살피고 알아차려라.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알은 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는 법 없이 아주 조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자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밀교의 수행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또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 괴로움은 수행의 과정이며 성불의 바탕입니다. 슬프고 기쁘고, 억울함이 있어도 성불의 일어나도 오로지 진언법으로써 이겨 나갑시다.

〈법경/통리원 사무국장/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종조님께서도 종단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으실 때는 몇몇 법을 밝게 보시는 스승님께 정진해 보도록 하셨으며, 정진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셨고, 결과에 의한 결정을 회의를 통하여 토의하시고 공포하셨다.

진언행자의 현실생활에서 결과내증은 신행생활에 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매달려서 맹신이나 과신을 하게 되면

사도로 흘러 바른 신행이 될 수 없으므로 자주 하여서는 아니되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하되 스승님께 질문하여 행하는 것이 좋다.

방법으로는 매일 수행하는 정시 정송 후 식전이나 오전 중에 마음이 안정되어 전일한 마음이 이뤄졌을

결과내증 정진불공법

때 회사법을 따로 세우고 참회, 읊남, 음치립, 육자진언, 준제진언 21. 108편으로 열송한 후 마음속으로 내증코자 하는 결정사항을 생각한 후에 육자진언 7회, 흙자오인, 회향서원으로 마친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그날 보고 듣고 일어난 모든 것이 당체법문이니 바르게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명령에 의한 것이나 기정화된 사실에 대해서는 내증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결혼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편집자 주〉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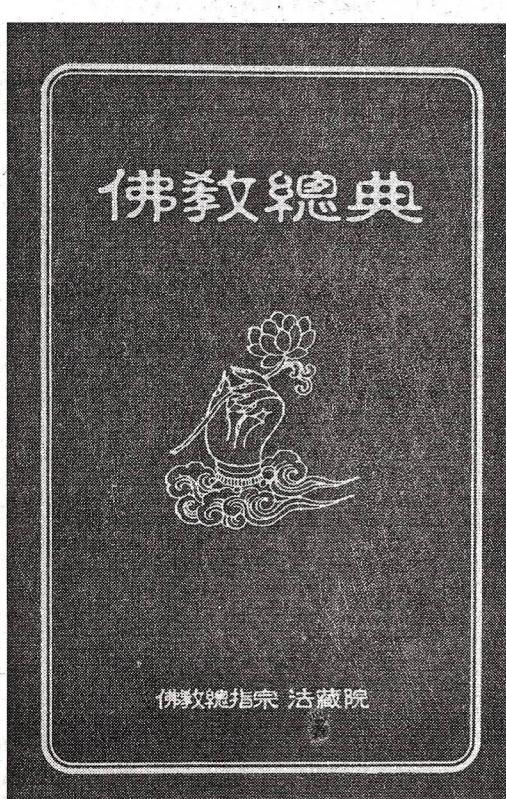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봤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애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 논단

<기획연재>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꽂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종흥과 함께 초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곧 개관될 「종조기념관」의 전시 유품 가운데 일부 원고입니다. 앞으로 원고를 계속 연재할 예정이므로 종조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통해 「종조기념관」을 미리 들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은 서원코 제도할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가 가이 없으니 서원코 끊을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법문이 다행이 없으니 서원코 배울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이 없는 참 도를 서원코 이를 것이다.

▶ 이제 이 삼계는 다 나의 것이요 그 가운데 중생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라. 이제 이 곳에 모든 환란이 많으니 오직 내리아 능히 구호하리라. [열반경]

▶ 부처님이 말씀하시오되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큰 구름이 일체 만물을 윤택하게 함께 같아서 목마른 중생으로 다행을 떠나게 하고 악란을 얻게 함이니 중생을 안락게 할은 세상에 능히 나를 미칠 자가 없느니라. [화엄경]

▶ 각해(覺海)는 깨닫는 바다로 불교를 말한 것이니 불교는 원체가 깨달음을 근본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다와 같이 깊

으로 넓은 것을 이르는 것이다. 심불교(心印佛教)는 본심불교(本心佛教)라는 뜻이다. 미묘한 대각의 진리를 인(印) 치듯이 명백히 있으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서 능히 보이고 또 즐 수 없으나 육자염송(六字念誦)으로써 대각(大覺)의 심인을 전수하여 자성을 깨닫고 선악을 알아서 행하는 교(敎)이다. 심인은 우이없고 깊으나 미묘한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이다. 해인(海印)은 각해심인(覺海心印)의 네 글자를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인 것이다.

▶ 남의 악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여야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하면 그와 같은 허물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 보아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허물을 다시 짓지 아니하기를 참회하는 데 나의 허물만 없어질 뿐 아니라 다른 이의 허물도 곧 없어지느니라. 어버이는 허물의 종자가 되고 아들과 딸과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저와 같은 허물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라. 인(因)이 없으면 과(果)가 없을 것이니 나의 적은 허물을 없애면 자식과며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다.

▶ 말이 폐역하게 나가면 또한 폐역하게 들어오고 재들이 폐역하게 들어오면 또한 폐역하게 나가느니라.

▶ 회사공덕은 어떠한 것인가?

답: 현재에는 골란제작 우환질병을 미리 없애서 소멸하고 미래에는 부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드러난 상벌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화복이 크며 사람이나 칭찬하는 것보다 진리의 복덕성이 크

며 나의 마음이 넓고 크고 동글고 차면 참회하면 나의 허물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 곧 없어지느니라.

▶ 경에 이르되, 남의 악한 것을 보고 남의 허물은 보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하

없어지는 것인가.

▶ 어버이에 효순하면 자식도 또한 효

순할지니 내가 불효하면 자식이 어찌 효

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나는

대각(大覺)님이 가정의 도를 설하시되 안을 닦지 아니하고 밖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 화가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밖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집에 어진 부인이 있으면 가장이 황화를 만나지 아니하나니 어진 부인은 가장을 귀하게 하고 악한 부인은 가장을 천하게 하느니라. 어진 며느리는 육친을 화하고 재주 있는 며느리는 육친을 과하느니라.

▶ 부처님이 탄생하시와 곧 일곱 자국을 동쪽으로 걸음하시고 이 같은 말씀을 하시오되 나는 사람과 하늘과 아수라 가운데 가장 높으며 가장 우이라 하시다. [열반경]

이제 이 삼계는 다 나의 것이요 그 가운데 중생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라. 이제 이곳에 모든 환란이 많으니 오직 내리아 능히 구호하리라. [열반경]

▶ 부처님이 말씀하시오되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큰 구름이 일체 만물을 운탁하게 함께 같아서 목마른 중생으로 다행을 떠나게 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니 중생을 안락게 할은 세상에 능히 나를 미칠 자가 없느니라. [화엄경]

▶ 각해(覺海)는 깨닫는 바다로 불교를 말한 것이니 불교는 원체가 깨달음을 근본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다와 같이 깊

나는 허물의 종자가 되고 아들과 딸과며느리는 허물의 결과

안을 닦지 않고 밖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그릇된 것

여야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답: 그와 같은 허물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 보아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허물을 다시 짓지 아니하기를

저와 같은 허물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

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라. 인이 없으면 과가 없을 것인니 나의 적은 허물을 없애면 자식과며느리의 큰 허물이

이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신교(信敎)의 유품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죽고 사는 것은 명(命)에 있고 부(富)하고 귀(貴)한 것은 인(因) 지금에 있느니라.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마음의 감기 혹은 자살

요즈음 각 신문마다 제공하고 있는 건강상식란에는 우울증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는 가벼운 재목아래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와 자살로 끝을 맺는 우울증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람이면 누구나 평생에 몇 번쯤은 우울한 감정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가 사망한다던지, 요즘은 30%에 육박한다는 이혼과 별거와 같

이 살아가면서 몇 번 겪기 어려운 일을 겪거나, 이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친지와 이별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사람에게 누구나 한 두 번씩은 겪는 일일 것이다. 이런 어려운 일, 보통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이별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한 정서가 일시적으로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우울

한 정서가 그 정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심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지속될 때를 말한다.

이외에도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여러 부분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갑상선이나 부신 피질의 질병처럼 내과적 질환에 부수적으로 동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스트레스나 내과질환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 일부

수 있는 좋은 항우울제가 개발되어 있어 우울증치료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이며, 적절히 치료하면 쉽게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 그러나 적

우울증은 정도가 심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 것

항우울제에 의한 약물치료와 상담 및 정신치료가 유효

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흥미와 관심의 상실, 불면, 식욕감퇴, 초조, 집중력 저하, 자살사고 등의 부수적인 증상들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의 10-15%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점이다.

분은 가족중에 우울증이 있을 때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

우울증의 치료에는 항우울제에 의한 약물치료와 상담 및 정신치료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작용이 별로 없고,

내성이 없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끊을

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실이라는 비극으로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 한 질병이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가락신경정신과의원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증후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이입니다.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com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원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 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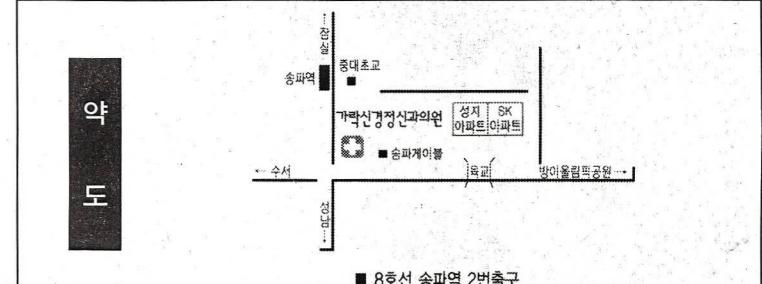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종경소리

시집가는 떨에게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 말 있었지요
강물같이 흘러간다 그런 말도 있었구요
우리 딸 어느새 자라 시집간다 그려네요
어려서 자랑자랑 품안에 안겨들고
봄바람 산들바람 신록 같은 그 아이
이제는 제 배필 찾아 둑은 떠난대요
신랑도 좋은 청년같은 학교 선배사이
그동안 만나보니 맑은 마음 바른 행동
멀리서 보기만 해도 미더웁고 든든해라
얘들이 하루하루 작은 일이 소중하다
사랑은 마음 속에 숨겨놓은 난초화분
서로가 살펴주어야 예쁜꽃이 피단다
부모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나요
다만 그저 두 사람 복되게 잘 살기를
손 모아 빌고 싶어요 양보하며 살거라

- 나태주/시인

신나리

널 향한 그리움을 놓으며
나, 먼 산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했다.
적나라한 유월 햇살 아래
살아온 내력을 묻는 땅 끝의 견고함
묵묵히 견디어 내며
어느 곳, 후미진 그늘에서라도
말간 향기로 가득 차 올라
기다림만을 배우기로 했다.
숨 막힐 듯 조여드는 지열의 질투
도심 범두리의 변명아래서라도
홀로를 견디는 인내를 배우기로 했다.
널 향한 그리움을 놓으며
나, 참된 그리움을 배운다.

보다 젊은 당신에게

산을 오르며 한번도 뒤돌아 보지 않았던 건
잘못이었습니다.
꼭대기에 이르자,

사는법

이 다음에 태어나면 나무가 되리라
어느 생의 소망이 이루어진 줄 모르고
평생을 한자리에 불박였다 답답하다 하는가
한시도 쉴 새 없이 헤매다니다 보니
세상 볼 것 안볼 것 다 본 역마상의 생이
이제 꽂 쉬면서 수양하는 중이다.
어떤가, 부질없는 꿈을 잡으려
동분서주 힘내 나는 몸부림을
나보다 누가 더 잘 알겠는가
가끔 옛 버릇이 잡초처럼 돌아나면
손 내밀어 지나는 구름도 슬쩍 잡았다 놓고
바람 더불어 신나게 춤도 추지만 아무래도
다음 생을 생각해서
명상에 들어 잡념의 잎을 펼구는 것을
또 외로워 보인다고 동정하지 마라
지금 나는 그지없이 행복한 순간에 있다.

- 최호립/시인

(자료제공 : 불교문예)

이달의 명상

유화선순은 자비심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유화선순보다 더 큰 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위주의 사회 또는 난세가 되면, 흔히들 강하고 투쟁적이며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거나 야사빠른 것이 필요 불가결한 듯이 말하지만, 그 생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것은 이기지 못하고, 투쟁은 화합을 넘어서지 못하며, 이기심이 선한 마음을, 야사 빠름이 순수함을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화선순은 곧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직'이라 하였듯이 자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화선순은 이토록 중요한 것으로 이 마음가짐을 한시라도 버려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처해더라도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평화롭고 착하고 순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유화선순의 몸 그 자체가 되면 어떠한 종생이라도 교회할 수 있으며, 부처를 이를 날도 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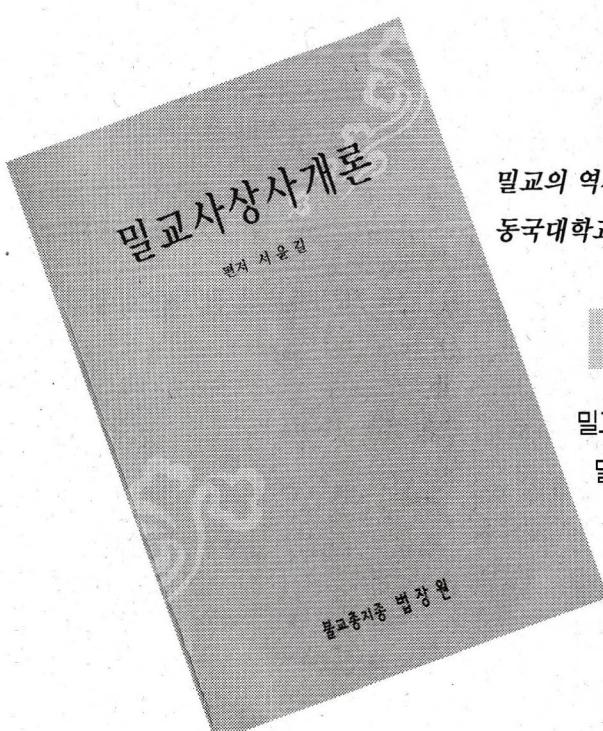
그런데 청정한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화선순은 커녕, 스스로 잘난 체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운다면 그의 장래는 너무나 암담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부까지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에 빠져서 올바른 공부를 하지 않는 수행자는 오히려 더 큰 업을 쌓을 뿐입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이승만뿐만 아니라, 나와 너는 똑 같다고 하는 이동만,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열만의 경우까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실로 내가 제일 잘 났다고 우쭐대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수행을 역행시키고 무명을 증장시키는 지름길 될 뿐입니다. 진정 처음 발심하였을 때의 그 마음과 같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항상 유화선순을 생각하고 자비와 자제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 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음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인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인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인락을 얻을 것이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세계속의 불교

Buddhism in Southeast Asia (남동아시아의 불교)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기원전 남동 아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역도시를 방문하게 된 인도 상인들에 의해 불교를 알게 되었다. 이 상인들은 남동아시아에 무역항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방 사람들은 많은 전통 신앙과 관습을 유지하면서 불교와 힌두교를 동시에 신앙하게 되었다.



Buddhism in Burma
(버어마의 불교)

인도의 아소카왕 초기에 많은 승려들은 불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타تون에 파견하였다. 타تون은 버어마 남쪽의 무역도시였다. 그러나 기원후 초기부터 인도와 버어마 사이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인도상인들과 종교인들의 왕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불교는 인도 불교사원의 많은 수도승들이 방문한 정도로 타تون의 여리지역에서 신앙되게 되었다. 그래서 타تون은 소승불교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

이 후 밀교가 버어마 북쪽의 사람들에게 소개

되었는데 그들은 힌두교와 전통신앙을 동시에 신앙하게 되었다. 11세기 중반에는 세력이 강한 아나우라타왕은 버어마의 남쪽과 북쪽지역을 통치하고 소승불교를 지원하고 전국가적으로 신앙하도록 하였으며 스리랑카로부터 불교서적과 유품을 가져왔다. 또한 폐간의 중심부에 사원과 불탑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그의 후손들도 이러한 일을 계승하여 폐간은 곧이어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그 후 버어마는 몇 세기동안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는 왕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계속 발전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모든 마을과 학교에는 사원이 건립되고 스님들은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 및 불교기초리를 가르쳤다.

19세기에 영국의 식민통치동안 불교단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0세기 중반 독립을 한 후 불교는 버어마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로서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Buddhism in Thailand (태국의 불교)

13세기 전에 지금 태국이라 불리는 지역은 수십개의 작은 독립국가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었다. 불교는 주변지역 국가들의 접촉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13세기 말에는 소승불교가 태국 왕립왕 행의 후원을 받아 성장하였고, 그는 소코태의 중심부에 불교스님을 초대하여 강의하게 하였으며 스리랑카에 스님들을 보내어 유학하게 하였다. 또한 교단의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승가의 수장을 임명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그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 태국의 모든 사람들은 불교신자가 되었다.

반세기 후 루태 왕이 통치하여 불교를 신봉하고 불교의 교단에 가입하여 재임기간의 3개월은 승려로서 수행하게 하였다.

그 후 태국은 몇 세기 동안 전쟁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계속 성장하였고 통치자들의 후원을 받았다. 태국 교단은 과거뿐만 아니라 근

세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불교에 개혁이 이루어져 불교교류에 대한 강조로 스님들은 불교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문의한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님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사원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스님들은 불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에는 해외에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스님들을 파견하고 있다.

Buddhism in Cambodia (캄보디아의 불교)

4세기 말부터 캄보디아 왕조는 인도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2세기 동안 통치자들은 힌두교를 신앙하였으며, 불교는 대승불교가 소수인들로써 신앙되었다. 그 당시 불교 스님들은 학자였으며, 5세기에 일부 스님은 중국에 초빙되어 인도어의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7세기에는 통치자가 힌두교를 후원하고 불교를 억압하였다.

그러나 9세기에는 불교가 통치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 자야바르만 7세는 불교를 신봉하여 대승불교를 그 국가의 주요한 종교로 신앙하게 하였다. 그는 앙코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중심부에 바이온이라는 사원을 신축하고 그 사원의 중앙에는 사람의 얼굴을 조각한 거대한 탑을 세우고, 주위에는 사람의 얼굴을 조각한 조그마한 탑들을 조성하였다. 이들의 조각상은 부처의 왕이라 명명한 왕들의 얼굴들이었다.

자야바르만 7세의 통치기간동안 버어마 스님들



한국 미처 라오스의 사원구조가 태국의 양식과 비슷하며, 많은 스님들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태국으로 보내졌다.

Buddhism in Vietnam (베트남의 불교)

베트남은 초기에 수 많은 부족국가로 형성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불교는 북부지역에 영향을 주었고, 몇 개의 부족국가는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스님들이 들어왔으며, 몇 년 후에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스님들이 육지와 바다로 파견되었다.

전통신앙을 신앙하던 일부 베트남인들은 순수한 땅이라는 불교학교에서 수행하였으며, 찬불교학교는 수련원을 만들고 불교학자들을 배출하였다. 통치자와 일반 시민들은 스님들이 유명한 학자, 작가, 시인, 국사였기 때문에 스님들을 존경하였다. 남부지역은 초기에 인도의 영향을 받아 대승불교와 힌두교를 신앙하였다. 15세기부터 남부지역은 점차적으로 세력이 강한 북부지역의 세력에 동화되어 중국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는 전 지역이 중국불교를 신앙하게 되었다.

근세에 베트남 불교는 현대화되어 거대한 불교교단이 설립되어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전쟁과 종교를 무시한 공산주의 통치에 의해 장벽이 생기게 되었다.

〈자료 출처 :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southeast.htm> 번역 김용주/총지총보사〉



Buddhism in Laos (라오스의 불교)

14세기 중반에 살았던 라오스 왕족의 후계자인 파뉴운은 어린시절 그의 아버지와 함께 캄보디아에 추방되어 살게 되었다. 그는 캄보디아 스님에 의해 보살핌을 받았으며, 그 스님은 그를 캄보디아 궁전에 데리고 왔다. 거기에서 그는 불교를 믿었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캄보디아 왕의 도움을 받아 라오스로 돌아와 통치하게 되었다. 아내의 부탁으로 그는 캄보디아에서 불교 스님들을 초대하여 궁전에서 불교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 후 불교는 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몇 세기 후에는 태국불교가 라오스 불교에 영

여성의 경우 음주자가 많지 않은 데다 음주량도 적어 당뇨병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뇌 뒷부분 안쪽서 꿈 생성

꿈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일까? 영국 BBC방송은 10일 스위스 취리히대학 연구팀이 밤작 이후 꿈을 꾸는 한 여성의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뇌 뒷부분 안쪽이 꿈을 다루는 곳임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73세의 이 여성은 밤작을 일으킨 후 며칠 뒤 의식을 되찾았지만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게 됐다. 그는 밤작 전 1주일에 보통 3~4번 꿈을 꾸었다. 뇌의 특정부분이 손상돼 꿈꾸는 능력을 잃은 것은 매우 희귀한 경우로 이를 처음 발견한 신경학자들의 이름을 따 '샤르코-월브랜드 증후군'이라고 불린다.

연구팀은 6주 동안 이 환자가 잠든 사이 발생한 뇌파를 관찰한 결과 이 환자가 꿈은 꾸지 못하면서도 REM(rapid eye movement) 수면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이 잠든 지 한 시간 반 정도 지나 나타나는 REM수면은 주로 꿈을 동반해 '꿈 수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환자처럼 REM수면과 꿈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뇌의 각각 다른 곳이 꿈과 REM수면을 관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환자는 밤작으로 뇌 뒷부분 안쪽에 손상을 입었는데 이 곳이 꿈을 만드는 '꿈공장'이 되는 셈이다.

이 환자는 1년쯤 지나 1주일에 한번정도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밤작 전 보다 생생하거나 강하지 못했다.



정보 디아제스 트

결혼비용 3년새 배로증가

지속되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3년새 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업체 (주)선우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는 5일 지난해 결혼한 5대 도시 신혼부부 294쌍의 평균 결혼비용을 조산한 결과 2000년 평균 7,854만원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1억3,49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2000년 및 지난해 모두 결혼비용에서 주택마련 지출이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값 상승이 결혼비용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마련을 주로 책임지는 신랑측이 부담한 결혼비용은 평균9,514만원(전체비용의 70.5%)으로 2000년보다 4,124만원을 더 지출했다.

연구소는 또 "예단과 해외 신혼여행 등으로 지출한 돈의 규모는 2000년보다 경제상황이 더 나빠진 지난해에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쓸데는 쓰자'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결혼비용에서 '현금'을 포함한 예단비가 차지

하는 비율은 평균 9.1%로 주택마련과 실집살이에 지출된 돈 다음으로 많았으며 결혼식 비는 평균 1,163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모와 동거보다는 분가해서 사는 부부가 많았고 집 소유형태는 전세,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이혼-실업 사회해체 위험 심각

현재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는 이혼 및 실업증가, 출산감소, 이념대립 등의 '사회해체위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사회과학과 임현진 교수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뱄벌기념관에서 열리는 '아산재단 창립27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50~60년대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생계위험, 70~80년대는 정치적 억압의 위험, 90년대는 기술적 재난과 생태위험이 한국 사회의 위험요소였으나 2000년대 들어면서 구성원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해체하고 적대관계를 증폭시키는 사회해체형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사회해체형 위험을 사회적 위험과 문화적 위험으로 나누며 사회적 위험으로 이혼, 실업, 강력범죄, 자살의 증가와 출산, 혼인감소 등을, 문화적 위험으로는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대립, 정보격차 등을 예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해체형 위험은 지난 98년 경제위기 이후 크게 증가했고, 출산과 혼인감소처럼 사회의 지속적 유지를 위협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주의, 집단간 갈등, 세대격차 등이 사회해체적 위험

을 증대시키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특히 문화적 위험과 관련, "지역갈등, 민주 대 반민주 간의 갈등처럼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갈등축은 빠르게 퇴조하고 있는 반면 보수 대 진보 간의 이념적 대립구도 같은 새로운 갈등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문

제제기가 젊은 세대 위주로 일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나 그로 인한 충돌이 대체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와의 갈등으로 비치

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 같은 사회 해체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실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 정상화를 통한 문화적 갈등 및 계층간 불평등 완화'를 제시했다.

마른 사람도 술 즐기면 당뇨병

마른 사람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면 당뇨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암센터 예방연구본부에 따르면 10년간 40~60세 남녀 2만9,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일본 전통주 2홉을 마시는 사람은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체질이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비록 마른 사람이라도 장기간 음주를 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에 연구팀이 10년간 29,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약 1,200명의 당뇨병 환자가 발생했다.

마른 사람도 상습으로 술을 마시면 당뇨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암센터 예방연구본부에 따르면 10년간 40~60세 남녀 2만9,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일본 전통주 2홉을 마시는 사람은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체질이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비록 마른 사람이라도 장기간 음주를 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에 연구팀이 10년간 29,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약 1,200명의 당뇨병 환자가 발생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지혜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인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상황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 자원봉사 및 투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향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침사림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원

문화기행

중국불교 유입의 길목을 따라

중국 감숙성 불교계를 돌아보며(3)

대작 불사가 이루어지는 역동의 감숙성 불교계

이 글은 법장원 연구원인 화령 정사가 중국 감숙성 불교유적지와 현재 그 지역에서 불교의 역할을 이끌고 있는 중심사찰을 돌아보고 쓴 글이다. 감숙성은 실크로드로 가는 간선도로가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하며 중국에서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땅이다. 이곳에는 불교 전래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돈황 석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유적지이다. 이 글은 감숙성의 불교 유적과 함께 그 곳에서 만난 불교계의 여러 인사들에 대한 느낌을 곁들여 3회 연재 중 마지막 글이다.

실크로드의 요충지-돈황 천불동 막고굴의 신비를 찾아

유립석굴을 참관하고 기련산맥을 원쪽에 끼고서 석양빛을 받으며 돈황을 향해 달려갔다. 한 여름에도 눈이 덮힌 기련산 맥은 난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곳 돈황까지 이어진다. 기련산맥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 그나마 사막을 약간은 적서준다고 한다. 한참을 달리다가 보니 녹지대도 많이 나오고 농경지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목화밭이 많이 보였고 옥수수밭도 많았다.

작만한 사막만 보다가 이렇게 녹지대가 나타나니 깔증이 좀 가시는 느낌이 든다. 녹지대가 많아지는 것을 보아 사막의 오아시스 돈황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유립석굴을 나와 세 시간 정도 가니까 원쪽으로 돈황 비행장이 보이고 다시 모래 산들이 나타났다. 저 모래산에 그 유명한 천불동 막고굴(莫高窟)이 있다고 했다.

내일 드디어 저 곳을 가보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인다. 몇 킬로를 더 지나니 돈황 시내가 나타났다.

시내 한 북판의 로터리에 돈황의 상징인 반단비파상(反彈琵琶像)이 10여 미터의 높이로 우뚝 서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반단비파상은 비파를 등에 짚어지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올리고 흥겹게

노리는 천녀(天女)를 묘사한 것인데 돈황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을 대리석으로 조각한 것이다. 역동적인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돈황 시의 상징으로 삼은 것 같았다.

우리가 도착한 것이 거의 오후 6시경이었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중국은 지역이 넓어도 시차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시간을 하나로 통일해 놓았기 때문에 이곳 돈황은 해가 늦게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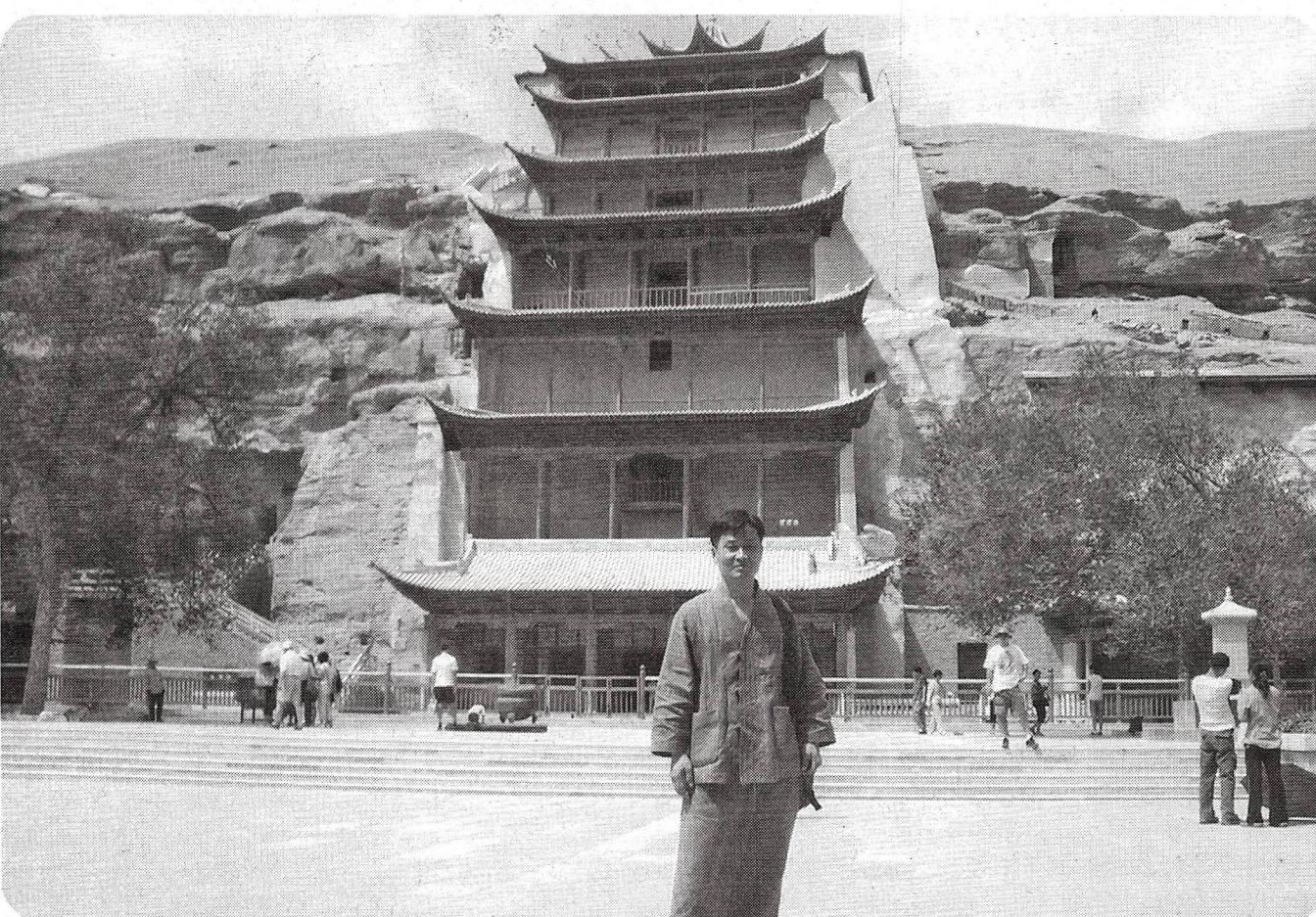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고 나오니 9시가 되었는데 그제서야 겨우 해가 넘어간다. 호텔을 나와 시내의 중심이 되는 양관로(陽關路)를 따라 야시장 구경을 갔다.

수많은 관광객이 거리를 누비는데 한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았다. 인구 13만의 돈황시가 막고굴 하나로 먹고사는 것 같다. 야시장에서는 돈황 막고굴의 벽화 복제품이나 조각 등 기념품을 팔기도 하고 회족들이 양고기를 구워 파는 곳도 많았다.

이곳만 해도 회족이나 위글 족 등 소수민족이 상당히 많이 산다고 했다. 나도 돈황벽화의 반단비파상과 관세음보살을 묘사한 작품 몇점을 샀다.

돈황은 중국 본토와 서역, 나아가서는 중앙 아시아로 이어지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이 지역을 서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고 한 무제 때는 여기에 하서절도사를 두었다.

그러나 중국 왕조의 힘이 약해질 때는



막고굴 북대불 앞에서

는 막고굴 때문이었다. 막고굴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저 군사적 요충지에 불과 했으나 근세에 들어 동굴이 외국인들의 손에 약탈되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곳이다.

별도 총총해서 마치 손에 가득 움켜쥘 것 같았다. 옛 사람들도 수천리의 사막길을 달려와서 이렇게 돈황의 달과 별을 바라며 하루를 묵었을 것이다. 오랜만에 흔신 목을 죄이고 모래 먼지를 씻어 지친

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개발된 곳은 남쪽 벽면으로 492개의 동굴이 있으며, 최근에는 북쪽의 동굴도 개발되어 현재 280여 개가 발굴되어 있다.

옛날에는 천불동이라 했는데 아마 사마

막고굴이 발견된 것은 1900년경에 왕원록(王圓?)이라는 도교의 도사에 의해서였다. 이 왕도사는 말이 도사이지 그다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크게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곳에 와서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굴 벽면에 구멍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그 구멍을 계속 파보니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적들이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훗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장경동(藏經洞)으로 알려진 동굴이다.

이 왕도사는 돈황현청에 그 사실을 보고했더니 관공서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고 그저 적당히 보관하라는 말만 들었다.

그래서 왕도사는 사람들에게 두루마리도 보여주고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의식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1907년 영국인 영국인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찾았고 왕도사는 이 영국인에게 자기로서는 엄청난 돈을 받고 그 두루마리들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또 이듬해는 프랑스인 페리오가 와서 꼼꼼히 살펴보고 옮길 수 있는 만큼은 가져갔는데 이 페리오라는 사람은 한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 두루마리들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가져갔다.

따라서 뒷날 밝혀진 것지만 스티븐은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마구잡이로 가져갔고 페리오가 가져간 것은 학술적으로 훌씬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 뒤 일본원정대나 러시아인들이 나머지를 모두 들고 가 버렸다.

이들이 가져간 두루마리 경권들이 훗날 학술적으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는 이들도 미처 몰랐다. 왕도사는 어리석은 중국인 하나에 의하여 중국은 어미어마한 보물덩어리를 막없이 외국인 약탈자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막고굴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왕원록의 무덤이라고 해서 탑을 세워 놓았는데 도대체 왕도사가 무슨 공로가 있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다.

9면 계속

돈황은 중국 본토와 서역 중앙아세아로 이어지는 요충지

막고굴은 시내 동남쪽의 명사산 동쪽 단층지대 위치

늘 이민족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이 혼재해 있는 특이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돈황 막고굴의 벽화 분위기도 그러한 혼재의 양상을 띠고 있다.

돈황이 더욱 유명해 진 것은 물론 남쪽

이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막고굴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 옛날 돈황이 흥성하던 때를 연상케 한다. 옛날의 돈황 시내의 모습은 어땠을까? 마침 오늘이 음력 16일이라 달이 매우 밝다. 사막 가운데의 오아시스에서 쳐다보는 달이 무척 새롭스럽다.

몸을 추스르고 마음껏 먹고 취하면서 하루 저녁을 즐겼으리라.

다음날인 8월 2일 아침 드디어 막고굴을 향해 떠났다. 막고굴은 돈황 시내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명사산(鳴沙山)의 동쪽 단층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총 길이 1.6킬로미터에 걸쳐서 남북으

로 거친 모래바람에 많은 동굴이 매몰되고 파괴되어 이 정도가 남은 것 같다. 막고굴은 대략 서기 366년 전진(前秦) 시대부터 만들어져 북위, 수, 당, 송, 원, 명, 청대에 까지 계속해서 축조되었다고 한다.

16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여성 美 한의원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간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자(임덧), 임신증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성작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디아이트
- 남성 : 복부 디아이트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혈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진료시간

평일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주말 9시 30분 ~ 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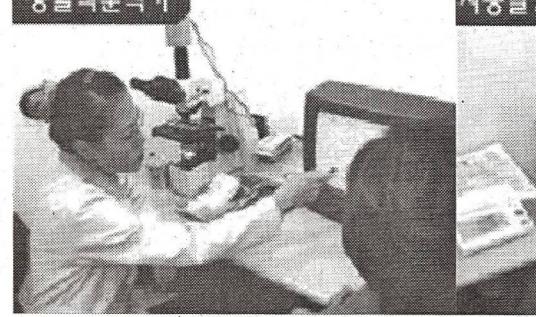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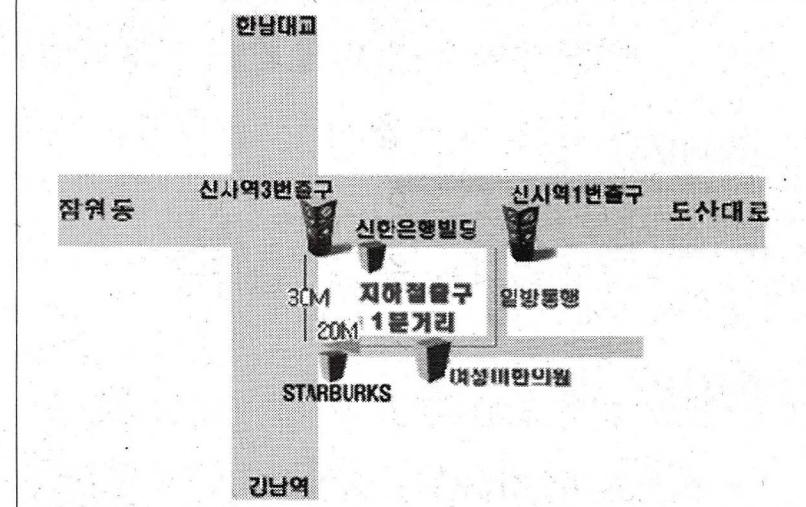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8면에 이어

세계의 보물 장경동 전적

외국인에 의해 약탈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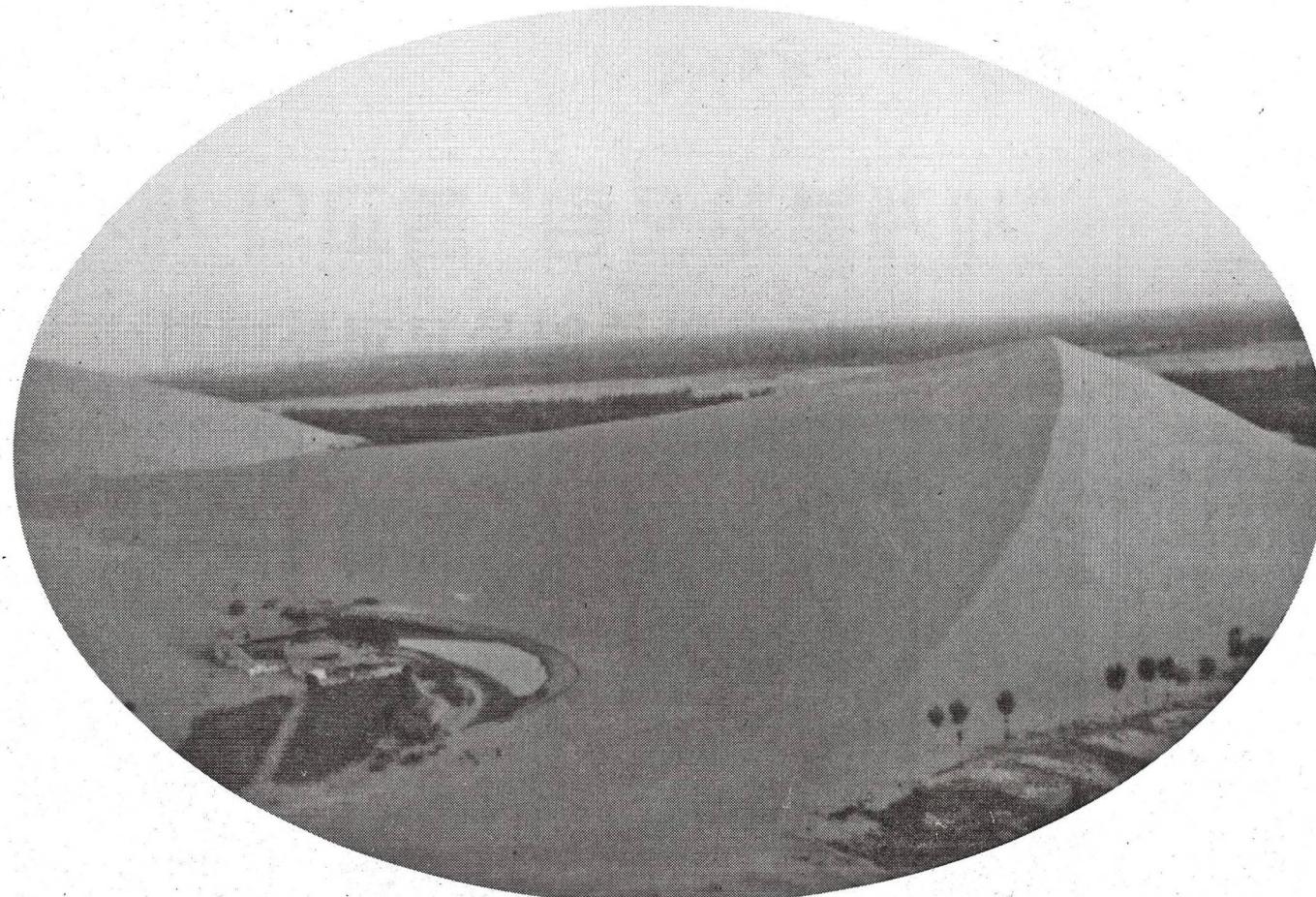
어쨌든 이를 외국인이 가져간 자료는 모두 4만권이나 되는데 운반도중에 분실과 훼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예를 들면, 짐을 나르던 인부들이 두루 마리 한쪽을 쪄 찢어서 담배도 막아 피우고 박스의 구멍도 메우고 하는 식으로 그 귀중한 자료들이 무지로 인해 영원히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이들 자료의 내용은 고대의 불교관련 전적들이 주종을 이루고 역사, 지리, 문화, 미술, 언어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감춰진 사실을 알려주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료들이었다.

신라의 혜초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것도 이들이 가져간 자료 안에 있었던 것이다. 돈황 장경동의 이러한 자료들은 불교학뿐만 아니라 동양학, 그리고 세계문화사 전반에 대한 기준의 연구를 뒤집어놓는 획기적인 자료들이었다.

이제 돈황 막고굴 안에는 이러한 자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벽화와 진흙으로 만든 불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벽화와 불상도 불교와 불교 미술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



명사산과 월아천

입구에 들어서면 '석실보장(石室寶藏)'이라고 쓰인 현판이 큰 일주문에 걸려 있고 그곳을 지나면 다시 '막고굴'이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나마 보여주는 데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곳을 들러보려면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490여개나

황 넘새가 나지 않고 초등학생이 흙장난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옛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가운데에서

돈황 장경동의 자료는 세계문화사의 기준 연구를 뒤집는 획기적 자료

벽화의 특성은 힘있는 선과 역동적인 묘사가 특징

들이다.

최근 중국정부에서는 돈황을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해 놓고 돈황 연구를 중국 주도하에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돈황 연구는 외국에 있다."는 말처럼 지금까지는 모든 문헌이 외국에 있어 외국인 위주로 돈황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복사기술의 발달로 외국 문헌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돈황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명사산은 아주 가는 모래로 이루어진 산인데 밟으면 뾰드득뾰드득하는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명사산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과장장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바람에 모래가 쓰러 올라갈 때 우레와 같은 소리를 울리기 때문에 명사산이라고 했다는 말도 한다.

이 명사산의 동쪽에 단애(斷崖)가 형성되고 거기에 막고굴이 있는데 지금은 백양나무들을 앞에 두고 남쪽굴과 북쪽굴로 나누어져 있다. 북쪽굴은 최근 개발된 곳이고 현재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곳은 남쪽 동굴의 일부분이다.

쓴 일주문이 보인다. 그곳을 지나면 정면에서 약간 비껴나 9층으로 된 누각이 보이고 그 좌우로 길게 석굴이 늘어서 있다.

이 9층 누각을 북대불이라 하는데 이 안에는 당나라의 축천무후 시대에 만들어진 33미터 높이의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남쪽에도 이와 비슷한 누각이 있는데 그것은 남대불로 부르고 여기에도 26미터 높이의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석실에는 모두 일련번호가 붙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최초에 프랑스인 페리오가 붙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인 장대천(張大千)이 돈황예술연구소 직원으로 있으면서 다시 번호를 매겼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따서 P와 C로 함께 번호를 적어 놓았다.

옛날에는 나무로 난간을 만들어 석실을 드나들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전부 시멘트로 발라져 있고 전면의 벽도 모두 시멘트로 범벅이 되어 있어 옛 모습 그대로는 거의 볼 수 없다.

더구나 문을 보호를 위해 석실 앞에는 전부 문을 닫아 자물쇠로 채어놓고 있었다.

관광객들에게는 겨우 10여 군데만 한정

되는 석실을 제대로 다 보려면 몇 년은 걸려야 할 것 같다.

이 곳의 벽화는 크게 나누어 부처님과 보살, 호법신장을 그린 것이 많고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 등 불교 관련 고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중국의 신화를 소재로 그린 것, 석굴을 만드는데 경제적 후원을 했던 사람이나 그들의 가족을 그린 것, 장식이나 도안 등을 그린 것, 산수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낙 긴 시간에 걸쳐서 조성된 벽화들이 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벽화의 특성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힘있는 선과 역동적인 묘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보살의 상들은 거의가 다 진흙으로 만들어 채색을 입힌 것인데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소조채색상(塑造彩色像)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불이나 동불에 비해 훼손이 심하지만 남아 있는 것들은 대체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묘사가 섬세했다.

나마지 소상은 거의가 다 청대에 와서 개보수를 한 것으로서 예술적 감각이 없는 비전문가가 했는지 상호도 이상하고

채색도 희끄무레하게 되어 있어 전혀 돈

328굴의 부처님은 상호와 자태가 너무 장엄하여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잠시 시공을 잊고 돈황 벽화의 웅장함

과 화려함에 취해 있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서야 했다. 나마지 못 본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다.

1902년 무렵에 소련의 공산 적군에 쫓겨 망명해 온 백계 러시아인들을 위해 양증신이라는 관리가 그들에게 이 동굴을 피신처로 제공했는데 그 때에 동굴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백계 러시아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솔을 걸고 밥도 해 먹고 해서 그들을 이 생겨 벽화를 다 망쳐 놓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벽화 복원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호만 잘해도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데 나라가 후진이고 미개하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얼마 전에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의 마미안대불도 무참하게 파괴되었지만 만약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전세계의 수많은 불자들이 두고두고 방문해서 외화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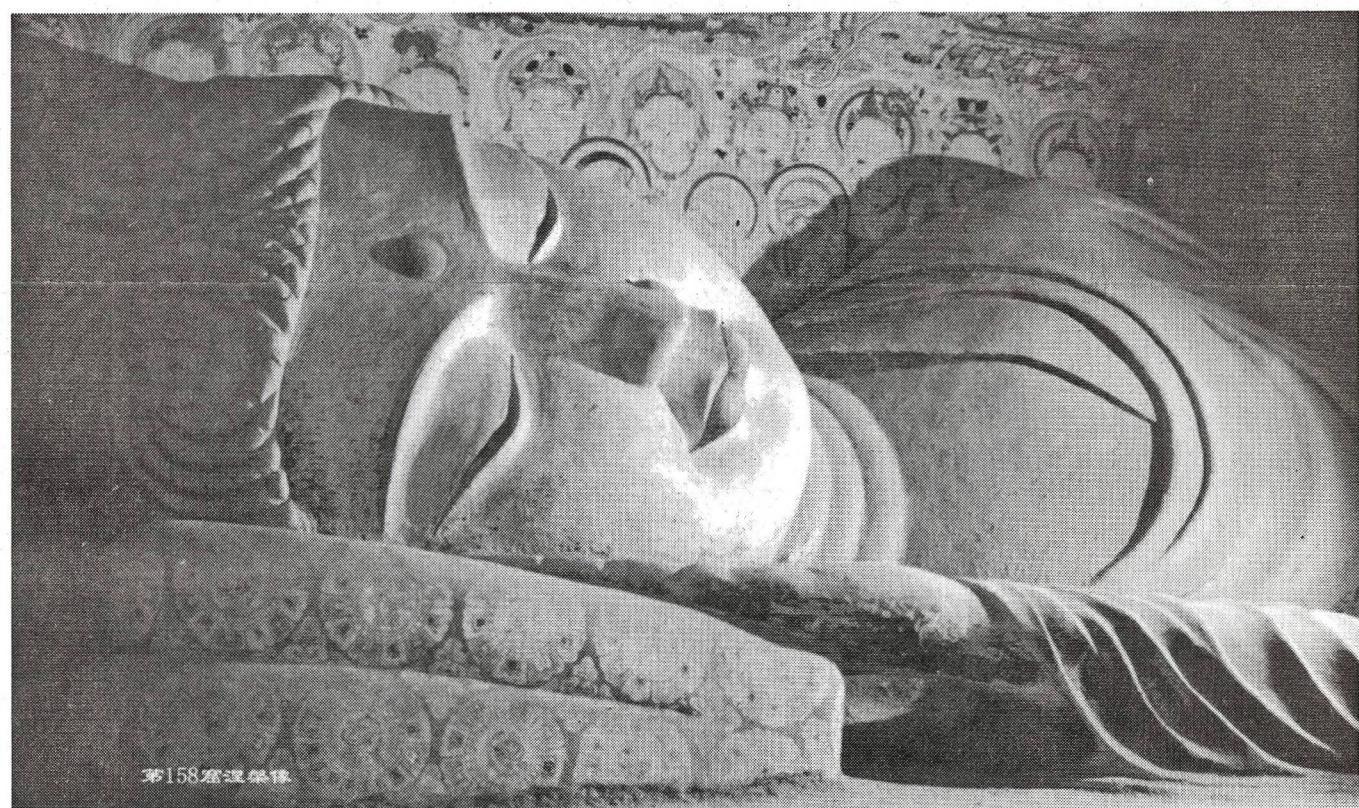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 우리 옛절은 산세와 어울려 절묘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수행도량으로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원경제가 풍족해지면서 그러한 좋은 자연 배경을 허물고 부조화스러운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막고굴의 석실은 크고 작은 것이 두루 섞여서 각자의 개성을 자랑하고 있다.

내가 본 석실 중에서 285굴은 천정까지 벽화가 가득 차 있는데 마치 하늘나라에 온 느낌이 들었다. 그 이외에도 112굴의 반탄비파상이라던가 159굴의 천녀상, 57굴의 보살상 등은 너무 아름다웠다. 그 밖에도 비천상의 원형이나 천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석실이 많았다.

잠시 시공을 잊고 돈황 벽화의 웅장함

<끝>



158호굴의 와불

불교방송 총지종 광고, 교리강좌 안내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승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아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고기간 및 시간 (9/14~3/4)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30분

※불교방송 강좌 안내

▷프로그램명 : 불교강좌

▷방송시간

오전 6시 5분 ~ 6시 25분

오후 9시 5분 ~ 9시 25분 (재방)

▷강사 : 화령 정사

▷방송기간

총기 33년 10월 11일부터 3개월간

BBS FM
전국네트워크

서울 FM 101.9MHz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대구 FM 94.5MHz

청주 FM 96.7MHz
춘천 FM 100.1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아제아제바라아제

얼치기 농군의 가을걷이

가까운 미래(?)에 남편과 나는 귀농을 할 생각으로 작년 가을 지리산 자락에 삼백 평 남짓 되는 작은 밭을 하나 마련했다. 농사용으로 약 땅없이 부족한 규모지만 집 한 체를 올리고 덧밭을 일구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되리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다. 그런데 봄이 되자 그 밭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했다.

거리가 워낙 먼 까닭에 어지간한 작물들은 관리부족으로 한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구입한 첫해부터 땅을 놀리는 것도 마음이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해서 손이 가장 멀 가는 작물을 골라 늦봄, 절기의 마지막에 파종을 감행했다. 고구마와 콩, 팔 삼형제였다. 이 놀들은 비만 적당히 외주면 잘 자란다니, 업무 차 가끔 실상사를 방문할 때마다 잠깐씩 둘러보면 어지간히 자랄 수는 있겠구나 싶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던 여름 어느 날 업무상 참석해야하는 회의 때문에 실상사에 내려 갈일이 생겨서 걱정스런 마음으로 밭에 올라가 보았다. 아니라 다를까 고구마 잎은 모두 말라비틀어져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 회의를 마친 다음날 살아남지 죽을지 모를 고구마들을 위해 남편과 나는 뛰어별에서 하루 종일 물을 널리야 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며칠은 꿩꽁 앓았던 것 같다. 늦은 밤까지 물을 나르면서 나는 고구마를 많이 먹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저 뛰어별에 시들어가는 작은 생명들이 안타까웠다.

자신이 뿐인 생명을 보살피는 행위는 그 대상이 비록 자식이 아니라 둔탁해 보이는 식물을 위한 것일지도 내 마음속에서 비슷한 감정들을 일으켰다. 그런데 기특하게도 그 고구마와 콩, 팔 삼형제가 지난여름을 무사히 버텨주는 바람에 드디어 어제새벽 온 식구가 가을걷이를 하러 지리산으로 향한 것이다.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 남동생과 남편 그리고 나, 온 식구가 총 출동했다. 밭에 도착한 가족들은 일단 막걸리 한사발로 목을 죽이고 나서 열심히 고구마를 캤다.

작년까지 논으로 사용하던 땅에 올해 처음으로 밭작물을 심은 터라 수확량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땅속에서 봄을 불린 채 잡들어있는 고구마가 생각보다 많았다. 한참 웃고 떠들면서 일을 하던 어른들이 힘이든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졌다. 나도 일을 다물고 호미를 휘손에 힘을 주면서 고구마를 찾아 밭이랑을 뒤졌다.

이런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와중에 모든 생명 종들이 보편적인 동질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다. 고구마의 크기와 모양에 관계없이 어떤 대상을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고구마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보편의 실재성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지성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학창시절에 나 자신을 끌어 없는 사유의 낭떠러지로 밀어 넣었던 생각까지도 했다. 서양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중세를 거치면서 확고한 사실로 굳어져있던 보편의 실재성이 1285년 런던 태생 프란

시스교회 수사인 육감이 “보편자는 오직 영혼 안에만 있고, 사물 안에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보편자는 신출되는 것이 아니라, 허구에 지나지 않는 추상작용을 통해 생겨날 뿐이다”라는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이단적인 견해를 밝힘으로써 개념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초월에 이를 수 있다는 뿐이 깊은 플라톤주의를 통렬히 비판하고 이후 유명론의 물고를 냈다. 그리고 그 논제는 다시 언어철학으로 이어졌다.

인도에서는 훨씬 앞서서 이 보편의 문제가 중요한 철학적 종교적 논쟁대상이 되었다. 불교가 유명론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니야야, 바이세시까, 미망사, 베단타등 일명 정통주의의 입장은 고수하는 학파는 실제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게다가 인도에서는 철학이 사변의 영역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실천수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긴 시간동안 심각한 논변을 주고받았다.

부처님께서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 진리를 밝히신 이후로 불제자들은 보편을 궁극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의사소통을 위한 약속된 기호의 가치로만 여겼다. 더 나아가 보편이라는 틀을 가지고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사설자체를 지혜가 없는 상태로 보아 원초적인 번뇌로 규정하고 열반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후대에 유식학파는 이를 변계소집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내 마음속이 보편자와 개별성의 문제로 한참 소란스러울 때 남편이 아이들을 불렀다. 고구마를 깨다가 겨울잠에 들어간 개구리를 발견한 것이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개구리를 안전한 곳에 땅을 파고 다시 묻어주었다. 잠시 후 남편이 또 아이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동면중인 도마뱀 한 쌍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접근하자 한 마리는 땅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지만 온몸이 노출된 너석은 서둘러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도마뱀이 그만 서로 헤어지게 되어 모두들 미안하고 안타까워했다.

오후 네 시쯤 수확한 고구마와 콩, 팥을 차에 싣고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즐음을 견뎌가며 운전하느라 정신없던 남편이 갑자기 한마디를 터뜨렸다.

밭에 걸죽을 만들기 위해 유기농 퇴비를 뿌리고 트랙터로 갈아놓으려고 했는데 농약을 안해서 인지 밭에서 쟁을 나는 생명들 때문에 그 일을 내년 봄으로 미루어야겠다는 생각이란다. 나는 퇴비를 많이 주면 지렁이를 너무 자주 마주칠까봐 걱정이 된다고 응수했다.

휴게소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잠시 눈을 부치는 사이 고구마 나누어줄 곳을 짐작해보았다. 아홉 상자를 캤는데 마을 분들께 벌써 세 상자를 풀었고, 지난여름 밭에 풀매운 친구들에게 한 상자, 시댁과 친정에 각각 한 상자씩, 그리고 함께 아주 할 친구에게 한 상자를 주고 나면 내 뒷으로는 두 상자만 남게 될 것 같았다.

그간 고구마 오십 상자를 사고도 남을 비용을 들여 지은 농사인자리 셈을 따지자면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땅의 결실을 나누는 뿐이었기 때문에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차한잔을 마셨다.

〈김선미/인드라밍생명공동체 총무국장〉

교계소식

“세계불교포럼” 불교의 세계화

제7차 한중일 불교교류대회



‘황금유대의 새 구상’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한국 대표단은 “삼국불교의 황금시대는 단순한 학술이나 인간교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각 방면의 전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환난구호같은 사업을 전개하여 자타불이와 동체대비의 불교의 대의를 실현하는 일야 말로 동북아시대를 맞이하는 삼국불교가 연합해서 할 일이며, 황금시대를 완성시키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중·일 삼국은 북경의 영광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개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린 마음으로 세계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어렵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것”을 발원하였다.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삼국의 대표자들이 “황금유대의 새 구상”

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한국 대표단은 “삼국불교의 황금시대는 단순한 학술이나 인간교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각 방면의 전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환난구호같은 사업을 전개하여 자타불이와 동체대비의 불교의 대의를 실현하는 일야 말로 동북아시대를 맞이하는 삼국불교가 연합해서 할 일이며, 황금시대를 완성시키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중·일 삼국불교교류대회는 1995년 5월 북경에서 제1차 교류회 의를 개최한 후 4개의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우호적인 교류활동을 진행하여 전통적인 우호를 계승, 발전하고 세계

미신고 복지시설 폐쇄

내년 7월까지 신고해야

정부가 내년 7월까지 미신고 복지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불교계 미신고 시설문제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응이 미흡해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천주교는 교단차원에서 미신고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비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올해 510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시설은 ‘조건부시설’로 등록시켜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시설은 올 연말까지 폐쇄한다는 지침이다.

불교계 미신고 복지시설은 46군

데로 이중 조건부시설이 아닌 시설은 23개소에 이른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이동, 노인, 장애인 등 시설

생활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비해 240여개의 미신고복

지시설을 보유한 천주교는 지난 21

일 천주교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등이 주도해 ‘정부의 미신고시설

정책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

시하는 등 교단차원에서 대책을 강

구하고 있다.

법정스님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최고경영자 네이션 선정

길상사 전 회주 법정스님이 김수환 추기경을 제치고 최고 경영자와 네이션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국내 종교인으로 꼽혔다.

기업교육 전문업체인 한국리더쉽센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우리시대 가장 존경받는 리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종교부분에는 법정스님이 34%를 얻어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김수환 추기경(26%)보다

8% 앞서 1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육한흠 목사(14%), 4위에는 하용조 목사(7%), 5위에는 김성수 주교(3%)가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고 경영자, 정관계, 교육 등 7개 부문에 대한 CEO포럼 회원 경영자와 임원 100명이 뽑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네이션 1,762명이 신뢰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아시아 불교사속의 한국불교

천태종, 국제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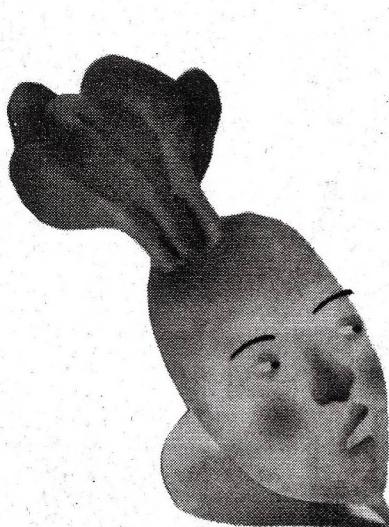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인터넷은 불교를 세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불교 디지털을 이용한 포교와 홍보전략을 통해 세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금강대학교 김유혁 총장과 랭카스터 미국 웨스트대 총장, 로버스 버스월 UCLA대 교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 원효 사상과 화엄 사상 등에 대한 학술발표와 토론을 끝으로 24일 폐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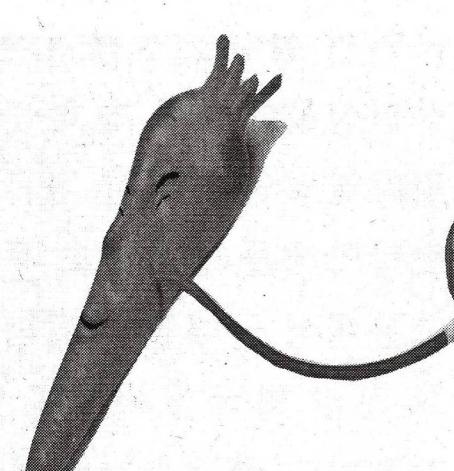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알버트 A슈바이처-



너친척 했니?

선진외국에서는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자국에서 해외로 흘리는 자급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혈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근이지!

+ 대한 적십자사

은 이 제안에 동의하여 오는 5월 제주도에서 삼국이 회담을 가져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삼국이 세계속의 불교국가로 자리 매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었으나 개방 후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었으나 포교의 자유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오는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포교의 자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중국 당국은 불교의 신도를 인구의 30%로 유지하기 정책적으로 불교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총지종은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각부장들이 참석하여 삼국불교교도들에게 총지종의 수행체계와 의식을 널리 알렸다.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기공식

1천600평 규모, 지하3층 지상4층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륜사에서 태고종의 총본산 역할을 수행할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의 기공식을 봄졌다.

이번에 신축할 전승관은 태고종 자부단 60여, 정부지원금 60억 총 1백 20억원을 투입해 5백여평의 대지에 지하3층, 지상4층 연건평 1천6백평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문화예술 상설공연장, 불교문화재전시관, 전통예전 및 인성교육관, 대불불교사상연구소 등을 갖춰 포교와 교육을 겸비한 불교종합문화센터로 우뚝 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은 운산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이후 2002년 12월 전승관 건립에 따른 공청회를 갖고 다음해 3월 전승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일정을 착수하였다.

법정스님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최고경영자 네이션 선정

길상사 전 회주 법정스님이 김수환 추기경을 제치고 최고 경영자와 네이션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국내 종교인으로 꼽혔다.

기업교육 전문업체인 한국리더쉽센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우리시대 가장 존경받는 리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종교부분에는 법정스님이 34%를 얻어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김수환 추기경(26%)보다

8% 앞서 1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육한흠 목사(14%), 4위에는 하용조 목사(7%), 5위에는 김성수 주교(3%)가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고 경영자, 정관계, 교육 등 7개 부문에 대한 CEO포럼 회원 경영자와 임원 100명이 뽑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네이션 1,762명이 신뢰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금강대학교 김유혁 총장과 랭카스터 미국 웨스트대 총장, 로버스 버스월 UCLA대 교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 원효 사상과 화엄 사상 등에 대한 학술발표와 토론을 끝으로 24일 폐막됐다.

노인시설확충 정부 재정지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 시행



2006년이 되면 전체인구 10명중 2명인 20%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각 교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골격은 2013년까지 요양시설 확충, 전문인력양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요양시설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3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 900여개소 등 1200

여개의 노인시설을 세우는데 매년 1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설확충과 더불어 전문 인력양성에도 신경쓰고 있다. 기존에 배출된 사회복지사 등을 노인들의 욕구파악과 요양계획, 서비스를 조정하는 요양관리사로 전환시키고, 간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도 기준 간병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양복지사의 경우 지원봉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일반 불자들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불자들의 전문간병인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 불교의 대사회 활동에도 공헌해 불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위원은 “사찰 등 종교시설의 일정

공간을 평상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로 활용하거나 법인차원의 신규시설 건립으로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며 “신도들도 자

원봉사자로서 가사자원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라” 태고종, 264명 최대 수계산림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 선암사에서 봉행된 ‘제28회 태고종 사미(니)계 수계식’에서는 종단 수계산림(초급승려 교육) 사상 최대 규모인 264명이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예비 승려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 신참 스님 중에는 교장과 의사, 공무원, 경찰, 배우, 미술가, 대기업 임원 등 다양한 직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눈에 띄었다. 태고종은 대처승 제도가 있어서 그런지 수계산림 법회에는 가족들이 많이 참석해 학교 졸업식장을 방불케 했다.

태고종 초급 승려가 되려면 사찰에서 1년여 행자 생활을 거친 뒤 4주간의 행자 교육과 득도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교육 중 수행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힘들어 이번 수계산림에서도 17명의 나오자가 나왔다. 이들은 공부를 계속하다 1년 후 연수교육을 통해 정식 승적에 올라진다. 지원자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종립 동방불교대학 재학생 54명 포함)이 160명으로 예

년에 비해 높아졌고, 평균 연령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예비승려도 나왔다.

승려 지원자 수가 늘어난 데 대해 총무원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세상사를 다 겪은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나라경제가 어려워지자 정신적·물질적으로 안정된 길을 가려고 승려의 길을 택한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또 30~40년간 가꾸어온 개인사찰을 남에게 넘겨주기 싫어 2세, 3세들의 출가를 재촉하는 스님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다.

태고종 관계자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승려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높다”며 ‘무소유’까지는 어렵겠지만, 출가 수행자들이 ‘맑은 소유’를 통해 새 삶을 찾고, 신도들과 지역사회에도 ‘청정의 거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님 말씀중에 “항상 애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을 버리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다보라”는 구절이 있다.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흥보기 전에 자신의 흉을 고치고, 남의 잘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전에 남의 잘된 점을 칭찬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화합과 상생은 반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애국심을 발휘하고 사회는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영위될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도록 각자 선행을 행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상을 버리고 하심하는 자세로 생활하여 혼탁하고, 분열된 사회에 감로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김 민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도시 이루어 질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가? 를 먼저 생각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는 일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앞으로 정치권은

특히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가? 를 먼저 생각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는 일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행체험 ⑯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박옥란(수장) 보살
(정심사 신정회 회장)

처음 총지종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종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종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창기 총지종이 창종된 후 원정님께서 종암동에 계실 때 저와 교도대표들이 찾아가 자주 뵙곤 하였습니다. 그때 보살들의 열성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언니는 밀인사에서 신정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교도들을 교화시켰고, 청주에 내려가 혜정사를 신축하고 현재 혜정사 주교인 수종원 스승님도 배출하셨습니다.

저는 밀인사에서 수행을 하다가 정심사가 교도가 없어서 정심사를 흥행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심사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정심사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은?

처음에 정심사는 교도가 5~6분 밖에 없었습니다. 월초 때가 되면 저 혼자 월초불공을 지기곤 하였습니다. 오로지 정심사의 교화활성화만을 서원하며 불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일심 전수님이 이곳에 주교로 임명된 후 전수님께서 열성적으로 교화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도시켰습니다. 요즈음 자성일 때가 되면 20~30분 정도 이곳에 와서 불공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몇 명되지 않은 교도로 공허한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월초에도 10명 내외가 참석하여 불공을 드리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로 소원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심사에서 수행하시면서 공덕은?

공력은 너무 많아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편생활을 하면서 폐결핵 등 건강이 아주 나약해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건강이 많이 양호해져서 학교 퇴임 후 동창회대표, 퇴직교사 모임인 삼락회 총무직을 맡으면서 봉사생활을 하였지만 너무 과로하게 일을 해서 그런지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육체적으로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공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또한 총지종에 교회되어 수행하게 되면 불단의 정엄화가 필요없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수행을 하게 되지만 처음 절에 찾아오는 사람은 서원당에 들어오자마자 혹시 사이비종교가 아닌가하고 깜짝 놀라며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단의 정엄화로 교도들이 주위사람들을 절에 대리고 왔을 때 불교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제도하고 교육합니다.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분명히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앞으로 훌륭한 스승을 배출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지종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종단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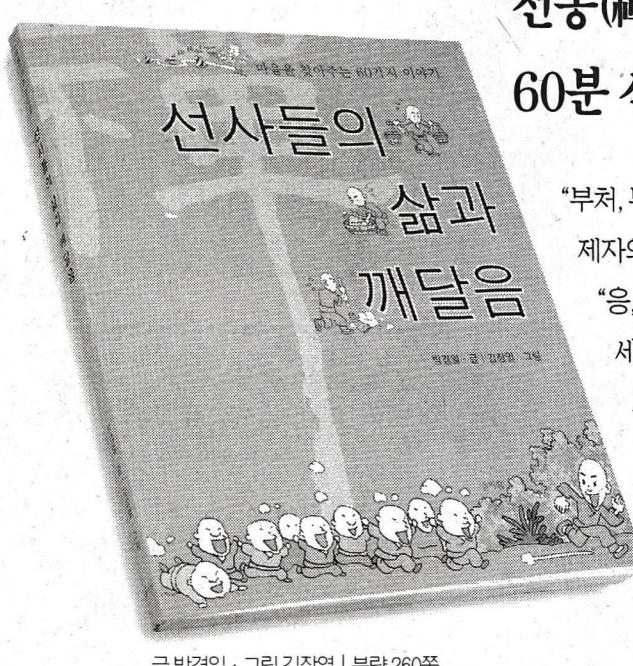
총지종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많은 공덕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부처님의 은혜에 의해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진리안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저에게 불법을 전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총지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납골묘, 기도도량 등 대 사회사업에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또한 총지종에 교회되어 수행하게 되면 불단의 정엄화가 필요없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수행을 하게 되지만 처음 절에 찾아오는 사람은 서원당에 들어오자마자 혹시 사이비종교가 아닌가하고 깜짝 놀라며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단의 정엄화로 교도들이 주위사람들을 절에 대리고 왔을 때 불교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제도하고 교육합니다.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분명히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앞으로 훌륭한 스승을 배출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찾아주는 60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선종(禪宗)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분 선사들의 삶이 여러분 곁에 다가옵니다!



“부처, 부처하는데 도대체 부처가 뭘니까?”라는

제자의 물음에 어느 선사(禪師)는

“응, 그거 ‘마른 풍막대기’야!”라고 했다.

세상에 우주민들의 본성과 그 작용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고귀한 부처님이 겨우 풍막대기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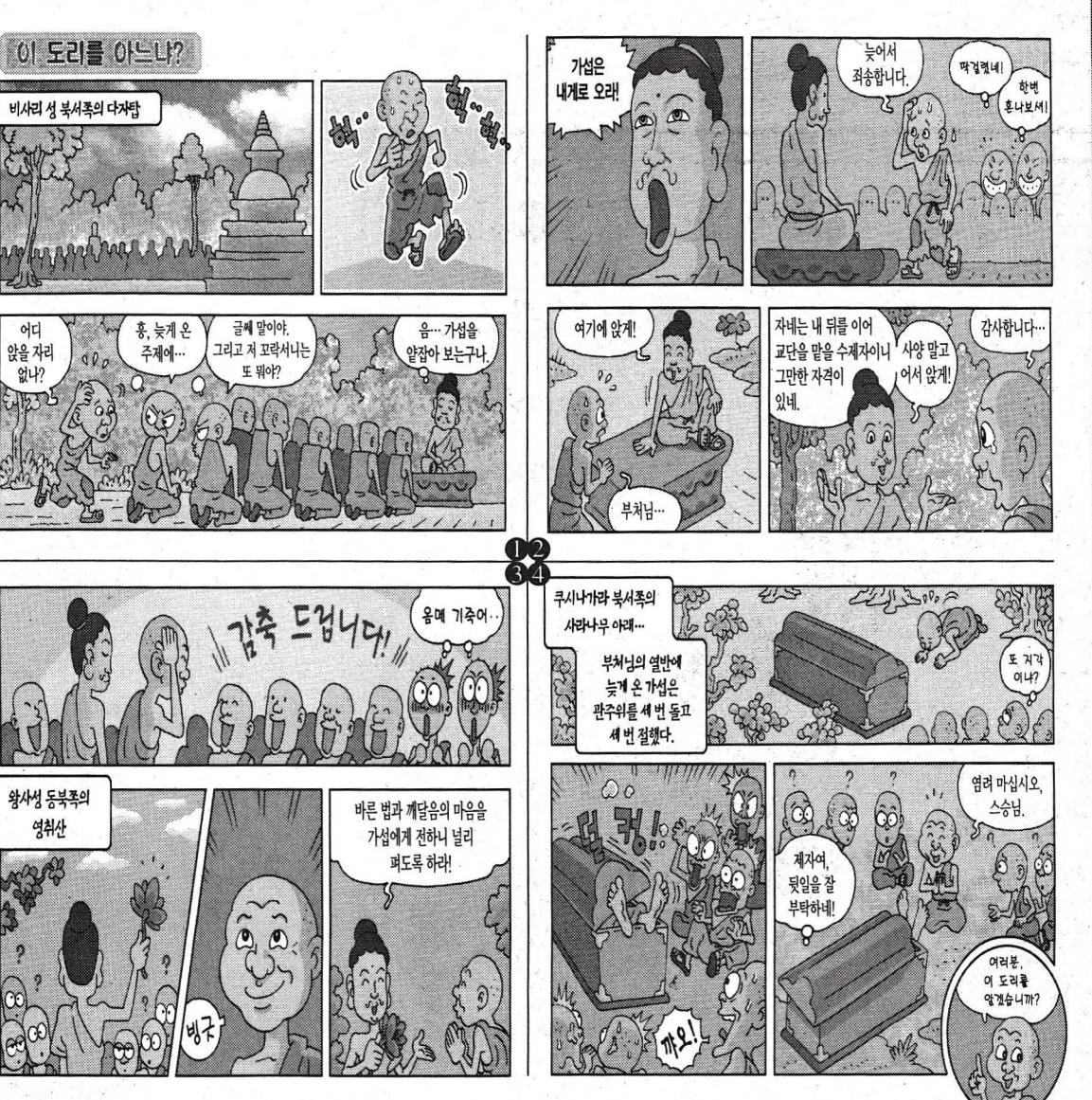
선사들의 세계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일러 준 정확한 대답’으로 통한다.

- 미리알 중에서 -

* 수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 법보시나 법우들간의 선물용으로도 최고!

* 마음시리즈 1권과 함께 구입하시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더욱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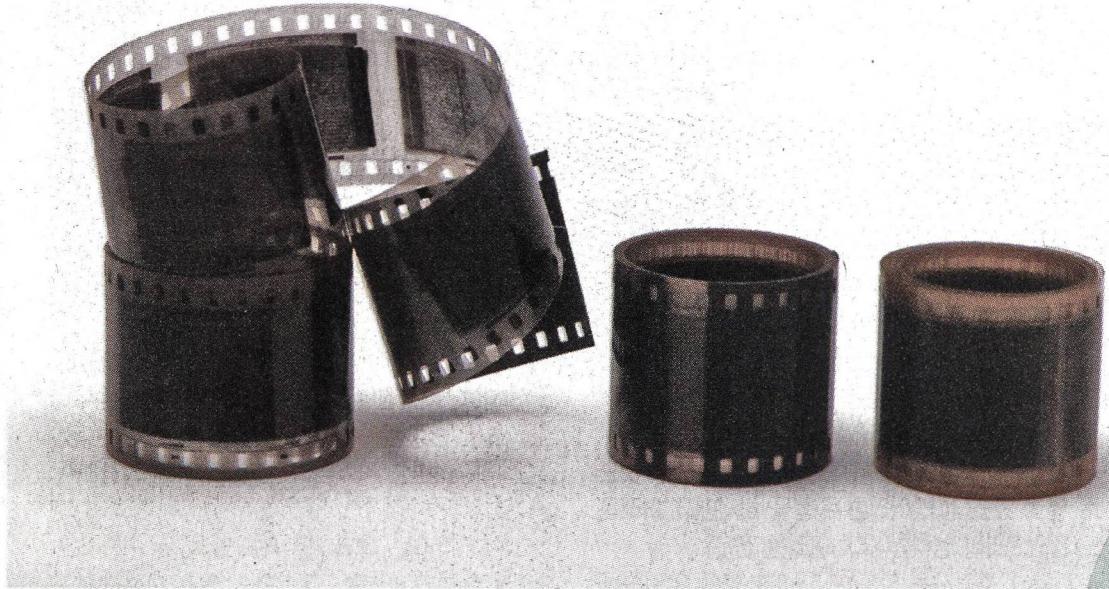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종조 원정 기념관



천년의 잠을 자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총지종!



소의경전 필름

밀교경전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청중 당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대승장엄보왕경』을 사진기로 촬영하여 번역에 활용하였다.



한문소의경전

종조께서 참고로 하셨던 한문으로 된 밀교경전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은 사진기로 촬영하여 현상한 것이고 『혈밀원통선불심요집』은 대장경속의 한문경전 원문이다.



불교 총지종은 법신비로자
나불을 교주로 하고 유태대명을 본존
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우바라
밀다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태금양계의 모든 경
궤를 보조경전으로 하며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
으로 하고 '동성족도', '색심불이'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상수로 사리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의
윤원대도를 얻게 하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재
생의세 하는 법이 다름으로 특히 이원진리를 밝혀서 물심
병진법을 가르치는 한편 시시불공, 치자불공법으로 생활
사불법, 불법시생활의 진리를 체득케하는 동시에 활
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울으로서 교성이 확립되고 입
교의식을 이에 두었다.

염주 종조께서 사용하셨던 염주, 사종수법에 맞게 백·황·흑색의 염주를 사용하셨다.



시초 종조께서는 중생교
화를 위하여 불교와
일반상식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졌다. 매사에 깊은 통찰력을
보이셨고 심득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셨다.



정진일지

종조께서는 의궤, 종무행정
전당건설 등 모든 불사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결과정진 및 동
향을 참고로 하셨다. 정진결과
와 동향을 일지형식으로 기록
하셨다.



사종수법용 사색건

사종수법은 식재법, 증의법,
경애법, 항복법을 거리킨다. 종
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청종과
함께 『현밀원통성불심요집』
에 근거하여 밀교심요의 사종
수법을 종단의 주요 수행법으
로 정하였다. 이 사종수법에
따라 의례를 행할 때 네 가지
색의 천을 덮고 각각의 결인을
하였다. 청종 당시에 사용되었
던 이 사색건은 총기7년 10월
17일 제12회 중앙종회에서 법
요의 긴소화를 위하여 사용을
보류하였다.



총지종 종조 원정 기념관 개관불사

천년의 잠을 자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승고한 가르침을 펼치
고 있는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뜻을 기리는 원정기념관 개관불사를
사부대중을 모시고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
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총기 33년 12월 2일 14:00

◆ 장 소 : 불교 총지종 총지사 2층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 552-1080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합장

